

광주 문화자산 발굴 소모임
연구결과서

2020 광주문화 백년대계
광주의 지문 地文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2

광주 의 지문

광주 문화자산 발굴 소모임
연구결과서

2020 광주문화 백년대계

광주의 지문 地文 2

편집자의 말

우리 도시의 좌표를 그리며	4
----------------	---

1 극장전

광주 공연문화의 역사 최창근	8
‘광주’에 대해 말하기 최윤경	18
이들이 광주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이유 염승한	24
여성 영화와 여성 영화제 노상인	32

2 무등농악전승보존연구회

무등산과 마을굿 그리고 무등산권 농악 살리기 김태훈	44
------------------------------	----

3 아따그라제

광주말과 청년 사이,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	64
아따, 광주말 편하게 쓰고 잡다!	84

4 인류딜 In New Deal

야 있냐, 워커빌리티 아냐?	98
전대 정문: 걷기 위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	102
해외 사례 연구: 광주와 닿았던 것, 그렇지 않은 것은?	105
단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겠어	112
초록 지붕집, 문화와 예술이 머무르는 곳	117
우여곡절 경주 답사: 우당탕탕 환상 부수기	120
라떼는 말이야... 백투더퓨처 80s : 문충선 대표님 인터뷰	128
30년 후, #(해시태그) 초록 지붕	132
전대 정문에 워커빌리티.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136

우리 도시의 좌표를 그리며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우리는 항상 스스로 이렇게 질문한다. 내가 발 딛고 선 이 공간은 어떤 곳인지 또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늘 주변을 살핀다. 내가 속한 공간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공간에 사람의 인연이 더해지고 추억이 덧입혀지면 그곳은 물리적인 공간 너머 나에게 특별한 하나의 '장소'가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장소에도 정이 가고 멀리 떠나있다면 간절히 그리워하지 않던가.

'나의 도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래서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선 이곳의 좌표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그 사람은 지역을, 도시를, 장소를 연구할 자격이 있다. 그게 우리가 공기처럼 숨 쉬는 도시의 '문화'라면 더더욱.

광주 문화자산 발굴 소모임 공모 '광주문화 백년대계'는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우리의 도시 '광주'에 대해 더 깊이 알고가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을 지지하고자 2019년에 시작되었다. 주로 특정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는 일에 몰두해오다가, 문득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분명 우리 광주의 문화를 읽고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전문 연구자는 물론이요 대학생과 예술인, 청년 기획자와 직장인 모임 등 다양한 그룹들이 '광주 읽기'를 이미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소모임 지원 사업은 이들이 만든 발자국에 문화재단의 그림자를 살짝 엿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작업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발자국들이 모일 거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개의 소모임이 선정되었다. 이들의 크고 작은 발걸음을 『광주의 지문』에 담아본다. 논문, 보고서, 에세이 등 결과물의 양식도 다양하고 광주의 극장·영화 및 연극, 무등산권 농악, 광주의 말, 광주의 도시 공간 등 주제도 다양한 이 책의 특징이 소모임 지원 사업의 의도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도시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광주를 연구할 수 있으며 이 수많은 이야기가 쌓이면 그게 바로 또 미래 광주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작은 발자국들이 다른 관심을 불러내고 더 많은 발자국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2020. 12.
광주문화재단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학을 다루는 6명의 연구자들이 모였다.

문학에 대한 관심과 광주에 대한 애정이 광주 영화와 연극에 대한 연구로
이끌었다. 어렵게 자생하고 있는 광주의 영화와 연극의 기반을 살펴보고
이들의 생태계가 꾸준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최창근 · 최윤경 · 염승한 · 노상인 · 신승

- 1 들어가며
- 2 협률(協律)과 협회(協會)의 시대
- 3 광주좌(光州座)의 등장
- 4 기생조합과 권번(券番)
- 5 나오며

1. 들어가며

호남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광주의 공연문화는 다른 어느 지역에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공연계는 침체를 거듭하게 되는데 광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전통문화계는 인기의 하락과 함께 시장의 축소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지역의 문화는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문화를 지키는 것이 지역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광주의 전통 공연문화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협률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서울에서 협률사가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광주와 호남 출신의 주요 명창들이 협률사를 조직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명창의 고향이라 인정받았던 호남인만큼 이 시대의 주요 명창 중에는 전라남도와 광주 인근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은 영화

01
박선홍, 『광주 1백년』 2,
광주문화재단, 2014, 21쪽.

와 같은 신기술의 유입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공연을 이어가며 문화의 맥을 지키고자 했다.

2. 협률(協律)과 협회(協會)의 시대

공연예술의 초기 형태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의 연극이 들어와서 변안극의 형태로 공연되기도 하였고 신극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호남의 공연예술은 서양 연극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광주는 판소리와 민요 등 전통문화가 중심인 지역이었고 따라서 공연도 판소리와 악기 연주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때 공연을 하는 단체를 협률사(協律社)라고 불렀다. 협률사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1902년이다. 그러나 대중의 풍속을 해치고 미풍양속을 어지럽힌다는 비판 속에서 1906년 폐지되고 만다. 이후 협률사에서 활동했던 김창환과 강용환, 김채만, 유성준을 비롯한 호남 지역 인사들 50여 명이 모여 1907년 김창환협률사를 조직하게 된다. 당대의 명창과 음악인들이 50여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했다는 소식에 단체를 해산하고 만다.

김창환협률사 이외에도 광주에는 광주협률사와 양명사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양명사(揚明社)는 1909년에 세워진 200여 평 규모의 가설 건물로 지붕을 이엉으로 덮고, 내부는 전면에 무대를 두었으며 객석은 2층 구조에 1층은 맨바닥에 거적을 깔고 2층은 기둥을 세워 다락을 단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남녀 관객을 분리해서 앉게 했다.⁰¹ 뒤이어 1912년에는 명창 김채만의 타계를 계기로 그의 문하생인 김억순, 공창식, 한성태 등이 중심이 되어 광주협률사가 결성되었다.

협률사 시대의 주요 인물로는 김창환과 송만갑을 들 수 있다. 김창환은 1854년에 태어나 1927년에 타계한 판소리 명창으로 정창업 문하에서 배웠으며 실력을 갈고 닦아 명창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김창환은 조선 최초의 협률사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송만갑은 1865년에 태어나 1939년에 작고했으며 고종 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활발히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송흥록의 동생 송광록의 손자이자 명창 송우룡의 아들이다. 판소리 집안에서 태어나 7세부터 판소리를 공부하였고 소년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다. 정창업의 서편제를 듣고 집안에서 내려오는 동편제에 자신만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 객지를 떠돌기도 했다. 이름이 알려지자 고종의 부름을 받고 소리를 하였으며 벼슬을 제수 받았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김창환과 함께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하여 창극 공연과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제자로는 장판개, 김정문, 박녹주 등의 명창이 있다.

협률사(協律社)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 개념의 단체로 현대적 개념으로는 예술인들의 직능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협률이라는 직업과 기술에 한정된 의미와 사(社)라는 단체 개념이 합쳐진 협률사라는 명칭은 이후 점차 사라진다. 그 대신 30년대에는 협회(協會)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된다. 협률에서 률(律)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사(社)가 회(會)로 바뀐 것이다. 기존에 협회(協會)라는 명칭은 공적 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가 내포하는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음악 관련 단체라는 한정된 의미이자 천민이라는 신분적 굴레를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짐작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백정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형평사(衡平社)가 있다. 형평사는 조선시대 가장 힘없는 천민인 백정들이 모여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차별 철폐를 위해 만든 조직이다.

02
동아일보, 1930.09.27.
「남녀 명창 망라
조선음률협회」

03
동아일보, 1931.07.02.
「조선연극사 삼국
이전으로부터 현대까지」 34

조선의 가곡과 음률을 개선하며 또 발달시키자는 목적으로 조선음률협회가 설립되었다. 주창한 이들은 조선 가곡계의 유수한 명창 송만갑, 리동백 등 남녀 수입여 명이며 그 외 사계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기세 조학진 제씨도 참가했다. 이십오일 오후 네 시 시내 국립관에서 그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거하고 명창의 연주가 있은후 동 아홉시 경에 폐회하였다

회장 김창환 부회장 송만갑 김창룡 총무 강원삼, 한정준 통리 이기세, 이원배 사무소는 시내 종로 이정목 조선축음기상회 내⁰²

그러나 협회로의 중대 변화는 음악인들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위기를 느낀 결과이기도 하다. 즉 협률사에서 협회로의 변화는 전통문화의 존재 기반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화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였다.

1930년에 조선음률협회가 조직되어 십일월에 조선극장에서 제1회 공연을 하였으니 당시에 상연한 각본은 삼국지 춘향전 심청전 토공전 등이며 주연자는 김창환, 이동백, 송만갑, 박녹주, 이화중선, 김추월 제씨다. 조선극국이 극히 쇠퇴된 현대에 그것을 붓잡으려고 애쓰는 동 협회의 금후는 주목되는 바이며 광월단 일행은 광무대가 회폭된 뒤에 서대문 외에서 흥행한다고 한다.⁰³

신극과 영화의 유행은 구극의 인기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일본의 자본이 투입된 극장은 영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으나 협률사는 전통극과 판소리 중심의 공연만을 해왔었다. 신극의 인기도 높았다. 당시 인기 있는 신극의 공연에는 천여 명의 관객이 몰려들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취성좌(聚星座)의 인기는 대단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할 때마다 많은 관객이 몰려 흥

행을 했다.

조선신극운동의 선구자인 취성과 김소랑 일행의 내광을 기하여 본보 광주지국에서 신춘 독자 위안 흥행을 한다 함은 기보하였거니와 예정과 같이 지난 이십, 이십일 양일간 광주좌에서 개최할 새 정각 전부터 운집하여 관중은 무려 천여 명에 달하여 근자에 보지 못하던 성황을 정하였섯다더라.⁰⁴

신파극의 인기는 과도한 우연의 남발과 개연성의 부족, 감정의 과잉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대중들은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신파를 더 선호했다. 30년대는 전통문화의 부침이 더욱 심한 시기였다.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단체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음악인들은 협회라는 명칭마저 버리고 연구회(研究會)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쇠퇴하여가는 조선 고래의 향토음악을 진흥 보급하기를 위하여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김응승, 이화중선, 박록주, 김동강, 오태석, 김종기 등 사계의 동지자급 유지들의 발기로 십일일 오전 열한 시에 시내 공평동 이십구번지에서 조선음악연구회 발기총회 급 창립총회를 개최한 결과 사무소를 시내 공평동 이십구번지로 설치하기로 하고 이사 이동백 외 십사 씨를 선정하였다 한다.⁰⁵

조선 음악회에서 점점 쇠퇴하여가는 조선의 고유한 소리를 다시 부흥케 하자는 의미하에 얼마 전에 전조선 남녀 명창들을 총망라하여 조선성악이라는 회를 조직하고 조선음악 연구를 거듭하여 오는 한편 일화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제 내용을 더욱더욱 충실히 하고저 이름을 조선음악연구회라 개칭하고 오는 십이, 삼, 사 삼일 간 부내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명창 음악대회를

04
동아일보, 1929.01.25,
「독자 위안극 이일 간 성황」

05
조선일보, 1934.05.13.
「조선음악연구회 명창들이
발기 조직」

06
동아일보, 1934.06.10.
「명창 음악대회」

07
조선일보, 1936.10.28.
「조선성악연구회서
다시 가극『홍보전』
상연」의 기사에서는
조선성악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08
조선일보, 1937.05.23.
「조선성연정총」

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입장료금은 특별석 일 원, 보통석 칠십 전이라고 한다.⁰⁶

조선음악연구회라는 공식 명칭은 이후 조선성악연구회와 혼용되어 쓰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⁰⁷ 한 단체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바뀌어 쓰인다는 것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음악이라기보다는 성악이라는 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음악이나 성악이나 하는 명칭 문제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음해에 가벼운 논쟁을 야기한다.

여기 한 가지 단체 명칭 변경의 건이 이동백 원로로부터 당당 심오분에 공하야 이유를 부쳐 제의되자 이것을 중심으로 음악연구회나 성악연구회나 체결이 문제를 이리켜서 음악과 성악의 학리적 구분이 전제, 이때는 방청석의 광두당들도 참을 수 없다는 드시 허끝에 불뚝을 날리며 의견을 술하였다. 이라케 하여 결국 이동백 원로의 제안은 부결되고 명칭은 그냥 성악연구회로 하기로 가결⁰⁸

가벼운 사건일 수 있지만 이때의 논쟁이 가지고 있는 구도는 특이하다.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원로 중 한 명인 명창 이동백이 주장한 음악연구회라는 명칭을 다수가 반대해 성악연구회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음악과 성악의 차이에 따른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판소리나 창극의 성격이나 동양과 서양의 음악 분류 차이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성악은 주로 서양의 오페라 등에서 기인한 구분이다. 또는 작곡, 성악, 기악 등의 구분에서 보다 분명한 차이와 정의를 가지는 명칭이기도 하다. 협률사의 등장은 근대라는 역사의 거대한 파도와 관련이 있다. 협

를사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므로 도시 공간과 관객 즉 대중이 전제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즉 도시라는 근대적 사회 체제와 시장이라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자리 잡아야만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기 시설이나 무대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도 극장은 도시 안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극장 구경은 일상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시의 밤 문화로 편입될 수 있었다.⁰⁹

09
우수진, 『협률사와 극장적 공공성의 형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0, 한국근대문학학회, 2009, 253쪽.

10
동아일보, 1931.11.10.
「광주 대화(大火) 광주좌전소」

3. 광주좌(光州座)의 등장

협률사가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공연 단체였다면 일본인의 진출은 새로운 공연 형태의 등장을 예고했다. 광주좌(光州座)는 후지카와 다다요시라는 인물이 세운 300여 명 규모의 극장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좌에서는 영화와 연극, 음악회 등이 개최되었다고 전하는데 화재로 인해 전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칠일 오후 육시 이십 분에 광주읍내 황금정 활동사진 상설관 광주좌에서 불이 났다. 맹렬한 화염으로 삼시간에 동 극장을 전소하고 부근에까지 연소되었으나 소방대의 노력으로 동 칠시 반에야 겨우 진화되었다 한다. 다행히 인축의 사상은 업섯으나 그 손해는 약 사만사천 원이라는 데 발화의 원인은 동 극장주인 등천의 집에 켜놓았던 축불이 필름에 넘어지어 연소된 것이라 한다.¹⁰

광주에는 광주좌 말고 일본인이 세운 또 다른 극장이 있었는데 구로세가 세운 광남관이 그것이다. 일제 초기 광주군청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광남관은 후에 제국관으로 개칭하였는데 규모는 600여

11
박선홍, 『광주 1백년』 2, 광주문화재단, 2014, 67쪽.

12
동아일보, 1933.05.25.
「황을수 군 초청해 환영 권투 대회」

13
박선홍, 『광주 1백년』 2, 광주문화재단, 2014, 82쪽

석 정도였다.¹¹ 제국관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을 공연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운동 경기인 권투 대회도 있었다

광주 기독교청년회에서는 조선이 낳은 세계적 권투 선수인 황을수 군을 초청하여다가 오는 이십칠일에 당지 제국관에서 황을수 환영 권투 대회를 개최한다는 바 군의 독특한 기술을 공개할 뿐이라 지난번 세계올림픽에 나갔던 감상담도 한 시간 가량 이야기한다고 한다.¹²

이처럼 극장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제국관은 일본인이 만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다. 이때 광주의 신흥 재력가인 최선진이 광주극장을 만들게 된다. 광주극장은 광주에서 최초로 유성영화 즉 토키영화를 상영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큰 충격이었다.¹³

4. 기생조합과 권번(券番)

광주의 공연문화에서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한 계층은 기생들이었다. 기생은 본래 가무와 음악을 갈고 닦은 예인들이었다. 고급 예술인이었던 기생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직업을 잃고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 기생조합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기생의 예술적 소질을 키우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체제를 마련해 당대의 명인들에게 교육을 맡겼다. 이들 어린 기생이나 교육생이 자신들의 솜씨를 선보이는 자리도 있었는데 이를 온습회(溫習會)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기생들의 조합인 권번(券番)은 기생에게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을 가르쳐 예능인으로 키우는 역할을 맡았으며 기생을

요정이나 연회에 보내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일제강점기 권번의 등장은 조선시대 지방관아에 소속된 기생을 관리하고 교육하던 기관인 교방의 폐쇄와 관련이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교방이 해체되자 지방관아에 소속되어 있던 관기들은 당연히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었다. 광주권번은 교방 폐쇄 후 예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1917년 ‘광주기에조합’으로 광주읍성 남문 밖에 설립되었다가 이후 1920년대 신생된 광주읍성 북문 밖 기생조합과 통합되어 ‘광주권번’으로 명칭이 확립되었다.¹⁴ 그러므로 기생조합인 권번 역시 형평사나 협률사처럼 기생의 권익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광주의 권번은 호남 지역에서 목포권번과 함께 호남 지역의 주요 기생조합이었다.

광주는 예로부터 예인(藝人)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재능을 인정받아 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만도 이장선, 이창조, 신갑도, 신방초 등이 있다. 광주권번은 각지에서 유능한 선생들을 초빙해 양질의 교육을 시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생을 배출했다. 교육과 생활 지도가 매우 엄격하여 단정한 옷차림에 걸음걸이, 앉은 자세, 머리 단장, 식사 예절, 화법 등을 엄하게 가르쳤고 큰 잘못을 저지르면 체벌을 가하거나 퇴학 처분도 당했을 정도였다고 한다.¹⁵

당시 광주권번 출신 중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한 명으로 안채봉을 들 수 있다.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1920년에 태어나 1999년에 작고한 안채봉은 열네 살 때 광주권번에 들어가 당대의 유명한 예인들인 박동실, 박영구, 임방울, 임옥돌, 조몽실, 안기선, 정웅민 등에게서 춤과 노래를 배운다. 뛰어난 예인으로 성장한 안채봉은 이후 1980년에 광주시립국악원에서 판소리를 가르쳤으며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¹⁴ 이명진, 『광주권번을 통해 본 광주 지역 판소리의 전승 양상』, 『공연문화연구』, 한국공연문화학회, 2018, 138쪽.

¹⁵ 박선홍, 『광주 1백년』 2, 광주문화재단, 2014, 36쪽.

5. 나오며

근대식 공연문화는 개화기 무렵부터 형성이 되었으며 광주 전남의 공연문화 역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비교적 다양하고 넓게 형성되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판소리와 전통춤의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역의 무속과 무가 문화 및 이를 담당했던 무속인들에게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전통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지역의 문화마저 수도권으로 집중돼 화려한 볼거리와 재미 위주의 공연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광주의 역사에서 공연문화가 차지하는 의미를 밝혀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광주 시민이라는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광주가 지닌 문화예술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 *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 * 박선홍, 『광주 1백년』 2, 광주문화재단, 2014.
- * 우수진, 「협률사와 극장적 공공성의 형성」, 『한국근대문화연구』 20, 한국근대문화회, 2009.
- * 이명진, 「광주권번을 통해 본 광주 지역 판소리의 전승 양상」, 『공연문화연구』, 한국공연문화학회, 2018.

‘광주’에 대해 말하기: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¹⁹⁸⁵와 이창동의 <밀양>²⁰⁰⁷

최윤경 전남대학교 강사

사람들은 1980년 5월 ‘광주’(이후 1980년 5월 ‘광주’를 ‘광주’로 줄여서 쓰기도 한다) 대해 말한다. ‘광주’와 함께 했든지 못했든지, ‘광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든지, 잘 모르든지,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광주’에 말한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광주’는 1980년 5월 ‘광주’에 기대어 지금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적잖다. 여기 1980년 5월의 열흘의 일부인을 짚지 않으면서 ‘광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설과 영화가 있다. 이청준의 단편 「벌레 이야기」(1985)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2007)이다. 두 작품은 그 어디에도 ‘광주’를 언급하거나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1980년 5월 ‘광주’로 그 회로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 세계이건 허구의 세계이건 죽은 자는 어둠 속에 속해 있으며 그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생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죽은 자들이 예술의 옷을 입고, 혹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빙의’의 형식으로 그 어둠의 세계에서 종종 호출된다. 압지가 종이의 잉크를 빨아들여 애초에 ‘쓸모’를 ‘쓸모없음’으로 보여주듯 죽은 자의 다하지 못한 삶은, 이루지 못한 꿈은 생의

활기로 넘쳐야 할 살아있는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는 아이를 유괴당하고 결국 면식범(유괴범)의 손에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때 아이 어머니의 고통은 자신의 생을 다 살아내지 못한 아이의 삶에 대한 비통함에 다름 아니다. 이야기 속에서 아이의 죽음 이 온전히 해명될 수 있었다면, 어머니는 아이를 삶 너머의 세계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 역시 적어도 그녀가 자신의 삶을 겨우 겨우 살 수 있을 만큼이라도 경감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당하며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만다.

소설 속에서 아이를 잃고 더 이상 일상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일은 ‘복수’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그 대신 ‘용서’를 택한다. 문제는 아이의 어머니가 유괴범의 죄를 용서하기도 전에 그가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 죄 없이 주검이 된 아이,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보다 살인자에게 먼저 미쳤다고 하는 신의 사랑이 아이의 어머니를 벌레가 되게 한 것이다. 소설 속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이 일인칭 서술자인 ‘남편’에 의해 전달되는 만큼 ‘벌레’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에 대한 제유이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내면을 오롯이 전달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청준의 이 단편에서 자식을 잃은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이 전달한다는 것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소설에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의 전달자로서 남편의 위치가 간단치 않다.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아내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남편은 아내의 고통, 아내의 ‘벌레됨’, 아내의 자살에 대한 방조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신의 이름 뒤에서 숨는 가해자, 그 가해자 입에서 발화되는 그 신은 대개의 종교에서 이야기되는 불편부당한 신이 아닌, ‘가짜’라고 말했어야 했

다. 그러나 남편은 그 가짜 신을, 가해자의 허울을 간파하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침묵함으로써 결국 아내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일 수 있다.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광주'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소설 「벌레 이야기」에서 유괴당해 살해당한 아이의 어머니의 고통은 5·18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겹쳐 읽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에 어린 자식을 내어준 어느 노모는 자식이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몰라 지금까지 대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말한다. 「벌레 이야기」에서 왜 죄 하나 없는 자신의 아이가 죽어야 하느냐고 절규한 아이의 어머니와 1980년 5월 죽은 자식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노모가 다를 것이 없다. 노모는 자식이 살아서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문을 잠그지 않는다. 그 노모의 행위는 어린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느냐는 절규에 다름 아니다. 1980년 5월 이후 대문을 열어두고 자식을 기다리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그 외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차단당한 이 노모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얼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주요한 사람들을 시인 이산하는 그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1987)에서 지목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들, 그리고 그 뒷배로 1980년 광주 학살을 조정한 자가 미군장교 제임스 하우스만라고. 그러나 이산하는 이 시로 필화를 겪었으며 시인과 시의 잃어버린 권리는 아직 복권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5월 이후 어린 자식을 잃고, 이제 90이 넘는 노모는 살아있다면 오늘도 그 집의 대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에서 남겨진 것은 그것이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에 의해 필터링되며 오롯이 혼자 그 고통을 안고 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이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고통을 가장 가깝게 읽어낸 것은 소설을 읽은 독자들이다. 그러한 독자 가운데 한 명이 이창동이다. 영화 감독 이창동은 아이를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가엾은 어머니를 카메라로 바로 비춰주고 있다. 그렇듯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의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탄생한 것이 영화 <밀양>이다. 소설에서 '어머니는 영화에서 '신애'의 이름으로 등장하며 아내의 이야기를 전달한 남편이 부재하다는 사실에서 차이가 있다. 영화에서 카메라가 신애를 바로 비추면서 관객은 어떤 여과 없이도 아이를 잃은 어머니 신애의 고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창동의 영화 <밀양>에서 역시 '아이'가 지켜지지 못한다. 신애의 아이를 죽인 유괴범이 신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까지 플롯이 동일하다. 그런데 소설에서 '어머니'와 달리 영화에서 '신애'는 신과 대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 <밀양>에서 햇별은 신에 대한 환유인데, 신애는 햇별에 대해 심심찮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신을 향한 신애의 대결은 결국 신애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모한 그 싸움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태세를 취하고 있는 신애를 지켜보는 것이 영화 <밀양>을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신애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데 영화는 이 가엾은 신애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거기에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청준 소설에 없는 인물이 이창동의 영화에 새롭게 등장한다. 살인자의 딸. 이 딸은 애초부터 아버지와는 상극인 인물이다. 신 뒤에 숨어버린 아버지 대신 이 딸이 보여주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딸이 신애의 집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유괴범은 끝내 붙잡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신애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을 들여다보는 범인의 딸, 이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범인은 잡혔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애는 두 남자 아이에게 범인의 딸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 대응도 안 하고 현장을 떠난다. 범인의 자식인 것이다. 그후로도 자식을 잃은 어미로서 신애

의 고통은 해결되지 못하며 자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여기까지도 소설에 없는 인물이 영화에 새롭게 등장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영화는 엔딩을 향해 가는데 신애가 정신병원에서 나와 머리를 자르게 위해 미용실에 가게 된다. 그런데 하필이며 그 미용실에서 범인의 딸과 신애가 만나게 된 것이다. 머리를 자르려는 고객과 미용사로. 둘은 말없이 서로 알아본다. 신애는 범인의 딸의 가위질을 견디고 있고, 딸은 신애의 머리를 자르는데 그 얼굴에 붉은 눈물 줄기가 흘러 내린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범인의 딸이 말한다. 가엾은 너는 어찌자고 범인의 딸로 태어났니? 그때 신애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지점에서 영화 <밀양> 역시 1980년 5월 ‘광주’와 접속된다.

우리는 얼마 전, 5·18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들을 향해 똑똑치 못한 소리로 자신에게 왜 그러느냐며 호통치는 전두환의 뻔뻔스러운 행동을 목도했다. 때가 되면 5·18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면서 국가 지키기를 운운하는 정치가들의 민낯을 익히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우리는 그들이 부끄럽다. 영화 <밀양>은 아버지에게서 면피되고 있는 부끄러움을 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아버지는 숨어있고 죄 하나 없는 자식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대신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많은 우리들은 ‘광주’의 이름으로 부끄럽다. 영화 <밀양>에서 신애와 범인의 딸, 그 둘 사이에 섰부른 용서와 위로는 없었다. 다만 현재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자리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자. 영화도, ‘광주’도.

영화에서 머리를 반만 자른 채로 미용실을 뛰쳐나온 신애는 자신이 사는 집으로 와서 스스로 머리를 자른다. 카메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르다 만 머리 길이에 맞추어서 자신이 머리를 자르는 신애

를 비추다가 바람에 실려가는 신애의 잘린 머리카락을 따라다닌다. 쓰레기가 나뒹구는 마당 구석, 거기에 든 햇별을 비춘다. 자식을 무참하게 잃음으로써 삶의 가능성을 차단당한 어머니 신애, 그러나 삶의 가능성을 완전히 끝내지 않기 위해, 벌레가 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영화 <밀양>의 엔딩 장면이다.

악행에 무감각하고 또 침묵하는 것은 그 악을 돕는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도록, 일상을 살 수 있도록 1980년 5월 광주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청준의 단편 「벌레 이야기」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은 1980년 5월 광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오월의 광주, 오늘의 광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이 광주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이유

5명의 청년 연극인 인터뷰를 중심으로

염승한 전남대학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연구원

- 1 문제의 출발점: 왜 광주에 남아서 연극을 하는가?
- 2 연극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만든 작품들
- 3 겪고 있는 문제점과 제시하는 해결책
 - 3.1 공적인 커뮤니티 허브의 필요성
 - 3.2 적극적인,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필요
- 4 결론을 대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하는 이유

1. 문제의 출발점: 왜 광주에 남아서 연극을 하는가?

2020년에 접어들면서 연극계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됐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공연 산업의 타격, 불황으로 인한 연극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로는 청년 연극인들이 연극 제작 과정에서 겪는 처우 문제였다. 특히 두 번째 청년 연극인들이 연극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2017년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부분이다. 광주의 연극계 상황도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아 많은 청년 연극인들이 서울로 올라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자는 막연하게 광주 연극계가 황량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주에 남아 연극을 하고 있는 청년 연극인들이 존재했고, “왜 연극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광주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났다. 그래서 광주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청년 연극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염승한·최창근¹⁶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연극인 인터뷰를

16
일정이 맞지 않았을 경우
혼자 인터뷰를 진행했고
녹취 파일을 공유했다.

17
청년 연극인 5명으로 광주
청년 연극인의 현황과
실태를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인터뷰를 위해
연락을 했지만 일정상의
문제, 무응답, 인터뷰 거부
등으로 많은 인원들과
인터뷰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기획하고 진행했다. 그래서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5명의 청년 연극인들을 대상¹⁷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지는 1.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 2. 작업한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3. 광주에서 연극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연극을 하는 이유, 총 4가지 챕터로 구성했다. 위의 챕터 순으로 진행하면서 중간에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인터뷰이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3년 이내에 광주 지역에서 연극을 공연이나 제작, 연극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으며, 모두 광주문화재단 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받아 활동한 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광주 청년 연극인들이 현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청년 예술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연극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또한 “왜 광주에 남아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고, “어쩌면 어떠한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의문을 해소하고 싶었다.

이 글은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연극인 5명과 인터뷰를 나누고 이들이 어떻게 연극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정리했다. 마지막 막으로 이들이 광주에 남아 연극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극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참여한 작업물

인터뷰의 처음에는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이들은 학

창 시절 연극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한다.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연극과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거나 대학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여 연극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본격적으로 광주 연극계로 진출해 연극 제작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인들의 소개였다고 말한다.

이들은 모두 연극 공연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중 몇 명은 공연뿐만 아니라 기획·제작 등 연극과 관련된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기도 했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작업물은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

1) 청년 문제

2010년대부터 이어져 온 ‘청년’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일자리, 결혼 문제를 고민하면서 자신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2) 5월 문제

자신들이 체험하지 않은 5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크게 기억의 문제, 전승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3. 겪고 있는 문제점과 제시하는 해결책

필자는 연극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광주에서 연극을 하는 동안 어려움이 무엇인냐고 물어봤다. 광주 시민들의 연극에 대한 관심 감소와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 다양한 이유로 연극만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왜냐하면 광주 연극의 제작 환경이 단기 프로젝트로 공연을 올리는

18
현재 한국에서 공연되는 연극은 단기 프로젝트 성격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극인들은 비정규직 노동 형태로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안채린은 이러한 현 예술계 전반의 노동 구조에 대해 “프로젝트 단위 고용과 비정규 노동 형태 중심 노동 환경으로 인해 창의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지속적인 생계 압박에 시달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비용 지출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이른바 ‘사회보장 사각 지대’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안채린, 「예술인 근로자 의제에 대한 고찰 - <예술인복지법> 국회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예술경영』 제45집, 『예술경영학회』, 2018, 57쪽.

19
예술에서 창작 활동 전반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에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조항과 고용보험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후로 예술인의 ‘노동’ 인정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영미 학계의 관점을 제시하며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미연, 「지역문화 생태계와 청년예술가 -Creative Sector Holistic Model을 적용한 광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저해 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 제51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9, 참조.

구조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연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방과 후 교실을 하면서 충당한다고 말했다.¹⁸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창작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일례로 한 연극인은 코로나로 인해 청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신의 연극 활동을 ‘노동’으로 증명하기 위해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연극인의 창작 활동과 그로 인해 나온 결과물이 ‘노동’의 산물로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은 창작자에게 좌절을 준다.¹⁹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한국 연극계 전체가 더 나아가 예술계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적은 수의 인터뷰 표본으로 진단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로 인한 극예술 환경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문제의식과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뷰 도중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세 부적인 질문을 추가로 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지역 예술인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었고, 두 번째로는 신인 예술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마련이었다.

이 두 가지는 연극을 제작하는 데 있어 연극인들의 내연과 외연을 강화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로, 연극인들은 이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1) 공적인 커뮤니티 허브의 필요성

연극인들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허브였다. 연극인을 포함한 다양한 예

술인들이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예술 외연을 확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의 경우 청년 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인들이 상주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술인만 레지던시에 진입할 수 있으며, 레지던시 내부 인원끼리 교류하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 광주시 다른 레지던시 간 교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다.

연극에 있어서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파악하려면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들의 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인원들을 모집할 때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에서 연극을 할 때 사적 네트워크를 어느 수준까지 구축하지 못하면 쉽게 연극 제작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사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연극을 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현재 광주에서 제작되는 연극은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출자, 기획자는 연극 제작 인원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연기자 입장에서는 공연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연극인들이 쉽게 광주 연극 제작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작업을 홍보하거나, 오디션을 공고할 수 있는 광주만의 공적인 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제휴하면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여 광주 연극계의 외연을 확장하자는 것이었다.

2) 적극적인,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필요

또 다른 사항으로 적극적인,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한 연극인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년 안에 소화하기 힘들데 연말에 결과물을 내야 해 미완성인 상태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1년의 결과물로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제출해 민망함과 허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피드백이 없어 방향성 없이 표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피드백은 청년 연극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이들은 광주문화재단에 지원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이후 피드백이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됐을 때만 그에 관한 간단한 피드백이 있지만, 탈락했을 때 피드백이 없어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해 탈락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드백도 부족했는데, 특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많이 생겨 연극을 제작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참여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관에서 성과 우선주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먼저 이 사업의 방향성이 ‘청년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 두 번째로 레지던시에 1년이라는 단기간 장소를 제공하고 결과물을 제출하고 레지던시를 떠나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들었다.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단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로 했다. 현재 이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사업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

다는 점, 기성 연극인들과 동일선상에 서서 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형식적이 아닌 청년 연극인, 더 나아가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년 연극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그럼에도 이들이 광주에서 활동하는 이유

인터뷰의 마무리에는 항상 “그럼에도 광주에서 연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남아있는 이유, 이들을 광주에서 연극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들의 답변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그 답변은 “재미있기 때문에”였다. ‘재미’는 현재 자신들이 광주에서 연극을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막연하게 ‘열정’으로 표현하기에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광주의 문제를 자신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어 했다. 5월을 비롯해 청년 실업 문제, 기후 문제 등 다양했다. 특히 5월 문제에 대한 이들의 시선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다. 청년 연극인들이 5월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고 난 후의 ‘느낌’들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느낌들에게서 오는 궁금증 혹은 이상함이 5월 문제를 다루게 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 청년 연극인은 “5월을 겪지 않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들을 만들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원해줘서 기분이 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광주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광주에서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과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같이 호흡을 한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이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극장에 만나 관객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 받고 싶어 했다. 광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동시대의 문제의식들, 취업 문제, 광주 시민이라 겪는 오프라인, 온라인 경험들을 나누는 곳이 연극 무대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현장에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연하게 황량하다고 생각한 필자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게 됐다. 청년 연극인 5명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좀더 많은 연극인들과 만나 인터뷰를 기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연극인들은 광주 연극장 안에 다양한 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늘 자신들의 표현 방식을 고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의 인터뷰는 그것을 간략하게 확인한 자리였다. 이 결과물을 발판 삼아 앞으로 장기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기획해 보고자 한다.

여성 영화와 여성 영화제: 여성의 눈으로 세상 보기

노상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1. 여성 영화와 여성 영화제

장지은(2017)에 의하면 그동안 ‘여성 영화’라는 개념에 대한 논쟁들이 여러 차례 있어왔다. 여성 영화가 여성 문제를 소재로 다루는 영화, 여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 조건만을 충족한다면 여성 영화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작가’와 ‘내용’의 범주로 바라볼 것인지 등이 해당한다. 그 외에도 여성 영화를 학문의 분야로 구성해야 하는지, 구성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란도 존재한다. 광주여성영화제 김채희 집행위원장은 여성 서사를 기준으로, ‘여성 영화’란 ‘여성이 중심이거나, 여성의 이야기가 많이 담긴 영화, 여성 감독과 여성 스태프가 많이 참여하여 여성의 시각이 담긴 영화, 차별이 없는 영화’라고 정의한다. 범주와 장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영화는 여성의 정체성, 혹은 여성들이 마주한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여성성의 본질을 탐구하여 여성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우는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남성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여성상은 남성의 상대역에 불과

한 보조적 여성 인물 혹은 남성의 그늘에 가려진 채 수동적인 역할만을 떠맡은 여성 인물에서 그려진다. 이에 반해 여성 영화의 주인공들은 여성들이며,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타자에게 우정과 환대를 보내는 여성, 진취적 기상을 갖춘 여성 등이 강조된다. 또한 그들을 억압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남성들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논쟁점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여성과 남성의 관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폭력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는 여성 영화는 이처럼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의 곁을 따라 권력과 획일적 시선에 의해 주변화되었거나 망각되었던 측면들을 조명하고 재해석해 나간다.

또한 여성 영화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영화로, 여성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도 포괄한다. 김성희(2010)에 의하면 여성이 제작자로 참여할 경우, 각기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여성들의 재현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류 미디어가 생산하는 여성 이미지가 아니라 또 다른 여성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제작 주체가 스스로 연기하는 과정, 경험과 감정을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오랜 기억을 재구성,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제작자는 대상화되고 주변화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소외되거나 무시되었던 여성의 구체적 경험과 가정을 사회적으로 소통시키고 맥락화시킨다. 여성 영화는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 생산의 장이자, 타자와의 소통 행위이며, 문화 사회에 개입하는 여성 주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여성 운동의 성장과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 담론의 확산에 힘입어 다양한 여성 영화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여성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여성 영화로 인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된다. 여성 영화를 바라볼 때 관객들을 호

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걸기를 시도함으로써 여성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화하는 것, 여성주의의 실천적 장이자 담론의 현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다.

여성 영화는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도전과 전복을 포함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행해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이슈를 ‘지금-여기’의 맥락에서 주목하고 조명하는 노력으로,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나아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로 선언함으로써 평등, 다양성, 인식, 투명성, 생산성 등을 설정한다. 류진옥은 이를 “여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소수자들을 배제하거나 침묵시키는 혐오의 정치, 남성성의 재수립과 남성 연대의 공고화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사회적 불안을 무마해버리는 시대 역행적인 시도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스토리를 재현의 장에서 비가시화시키는 반여성적 분위기에 대한 한국 영화의 문화 정치적 대응이자 답변”인 것으로 설명한다.

조혜영(2015)은 한국사회에서 ‘여성 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것은 여성주의 영상 제작이 활발해지고 ‘여성 영화제’가 개최되면서부터임을 지적한다. 1990년대 국제영화제들이 연달아 만들어지고, 영화 전문잡지들이 창간되거나 예술 영화, 작가 영화, 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이 등장하면서 영화 문화는 풍부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 문화에도 결핍되고 불균형한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현실에서의 성 불평등,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 스크린 위의 여성의 결핍, 여성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여성 재현의 결핍, 여성과 소수자 관점에서의 섹슈얼리티 재현의 부족, 영화 산업 내에서 여성 영화인의 결핍’이었다. 여성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내보일 기회가 적었던 것처럼 당시 시각 문화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성별 불평등이 존재했다.

조혜영(2015)은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지워지고 가려졌던 여성 영화인들을 재조명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여성 영화제의 출발이 되었음을 밝혔다. 여성의, 여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영화의 등장이 시대적으로 요청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97년에는 서울국제여성 영화제가 개최되고, 뒤이어 1999년 청주여성영화제, 2000년 제주여성영화제가 개최되었다. 2006년부터는 인천여성영화제가 개최되는 등 매년 본격적으로 부산, 광주, 대구, 경산, 수원 등의 지역에서 여성 영화제가 열리게 되었다.

여성 영화제는 각 지역별로 개최 주체와 목표, 시기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여성 영화제는 여성이나 소수자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며, 여성 감독이 여성의 시선으로 만든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 공감을 형성하고 영화의 관점과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지은(2017)은 여성 영화제가 이처럼 제작자와 참여자, 등장인물로 참여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개인의 의식과 경험을 공적으로 표출하는 대안적 소통 방식과 구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을 지적한다. 여성 영화제의 역할은 여성주의 영화를 생산하거나 발굴하고, 이를 상영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통해 담론 자원을 형성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여성 영화와 여성 영화제는 여성들의 경험을 공적으로 결합시켜 여성주의 공공 영역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 공공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과 지배적 공공 영역의 교집합인 대항적 공공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결합 및 협상 지대’로 설명된다. 이 지대를 생산해 내기 위해 여성주의 영상 제작과 미디어 운동은 여성들의 사회적 목소리를 높이고, 여성주의적 공간을 창출해내며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조직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여성 영화제와 다양성의 맥락들

그동안 여성 제작자들은 열악한 제작과 배급 환경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영상을 제작하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문제는 영상 매체 구조와 질서를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화(영상) 제작과 상영의 벽은 실제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은 국내 여성 영화제들이 여성 영화인의 배출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여성 영화 인력 발굴과 육성에 힘쓰게 된 배경이 되었다.

장지은(2017)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 영상 제작 활동이 당대 사회 운동의 확산과 성장이 영화제의 증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영상에 익숙한 영페미니스트들의 참여와 맞물리면서 여성주의 운동의 한 갈래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영화제의 역할을 설명한다. 영상 제작은 여성주의 영상 운동을 표방하는 독립 제작 단체와 여성 단체와의 연대, 그리고 미시적인 경험 영역을 재현함으로써 여성주의의 소재 및 주제를 확장했지만, 여성주의 영상 제작이 사회적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상영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소통되어야 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 영화제가 여성 제작자들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고 홍보, 배급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 자본, 문화의 이동과 교류가 가속화되면서 문화 다양성에 입각한 다문화주의적 감수성이 요구되고, 사회 전반에서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지역과 세대, 그리고 성별을 아우르는 지구적, 지역적 소통과 감성의 나눔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나타난 제도적 변화와 함께 한다. 예컨대 문화예술 실태 조사 시 여성 관련 평가요소 도입, 여성 참여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산업 분야 여성 인력 양성 지원, 여성 역사 인물 및 여성 관련 문화재 발굴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 영

화인의 인프라 구축, 여성 영화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에도 힘쓰게 된 것이다.

이과 관련하여 김지미(2020)는 다양성과 관련해 2019년 한국 영화에서 두드러졌던 현상이 여성 감독들의 약진인 것에 주목했다. 영화계에서 '성별 구분'은 사실 여성에게만 한정된 요건이다. '여성 감독'에서 '여성'이 특이 사항이 되는 것은 영화계의 노동 환경이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흡수되는 인력의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고용 불평등의 문제는 여성 인력이 현실적으로 영화 업계에서 일하기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성 관객에게도 여성이 주체로 등장하는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차단한다. 여성 연출자의 수와 여성을 주체로 한 서사의 구현 사이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자리한다.

1990년대 초반 여성주의를 표방한 여성 인물들은 자기실현을 위해 좌충우돌하고, 가부장적 가족을 붕괴시키면서 사회가 규정한 자리를 벗어나려 애썼다. 그러나 여성들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스크린 위에서 급속하게 사라져 갔으며, 어떤 방향으로든 재현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결핍된 상태에서는 결핍을 인지하는 일조차 어렵다. 결핍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김지미(2020)는 2019년도에 상영된 <벌새>, <가장 보통의 연애>, <윤희에게>, <82년생 김지영> <메기>, <아워 바다> 등 여성 감독들이 만들어낸 서사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 우리 영화에서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었음을 제기했다. 여성 감독이 많아지면 스크린 위에서 여성이 재현되는 수와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영화제는 참여 관객이 영화제 참여를 통해 성별 고정 역할, 성차별 문제에 대한 성찰 및 이해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한다. 그동안 여성들은 소비자로서만 위치지어지면서 문화의 생산자나 주체자로서의 정체성은 무시되어왔지만 여성 영화

제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와 포럼, 토크 프로그램들을 기획함으로써 변모를 꾀한다. 관객들은 영화를 본 후 질문과 토론, 논쟁을 통해 서로 경합하며 차이를 확인하거나 이해하면서 영화를 자신들의 사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영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장을 형성하는 문화 생산자들이 된다.

조현영(2015)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영화제에게 남겨진 과제란, “대중문화의 내부와 그 한복판에서 여성주의를 논의하는 대중적 여성주의의 장으로,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여성 문화나 여성주의를 주입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객의 정서, 감정, 일상에 스며드는 여성 영화(제)가 구성되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고민”임을 제기한다. 문화적 현상이 다소 일시적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문화 이벤트가 진정으로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가능성과 효과의 지점은 일상 문화를 둘러싼 대중 사회에 쉽게 포섭되지 않은 공간을 구축하는 전략에 있는 것이다. 여성 영화제는 그동안 여성 영화에 있어 여성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화를 도구화하지 않으면서도 영화를 위한 영화라는 영화광의 영화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려 고민해 왔다. 이제는 다양한 위치에 자리한 문화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고민하며 그들이 제기하는 성평등 문화와 다양성의 맥락들을 확장시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여성들의 삶을 바라보기-위로하기

여성 영화는 여성의 일상적인 문제와 이슈에 대해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나아가 성소수자, 이주 여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뿐 아니라 주부까지 다양

한 계층과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이미지화하고 소통하게 한다. 이처럼 여성들의 경험과 시각에 근거하여 여성주의적 의제를 구성하고 전달하며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핵심적인 활동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성 영화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여성 영화제는 여성들이 제작자로, 등장인물로, 상영자로,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소통되지 못했던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경험을 공적으로 표출하고 공유하며 남성 지배 문화에 저항하는 대안적인 소통의 방식과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된다.

2020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간 진행되는 광주여성영화제는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조직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기획을 시도하였음을 밝히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터에서 쫓겨나고,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등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따라서 올해 11주년을 맞은 영화제는 코로나19 시국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는 코로나 이후 세상에 대한 전혀 다른 비전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여기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 또한 반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할 때 비로소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존과 평등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기대하며, ‘다시 시작하기’, ‘새로운 길을 만들기’에 여성들과 함께 하는 걸음을 내세웠다. 이 걸음 안에서 광주여성영화제는 극장 상영과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단편 초청 부문 9편, 단편 경쟁 부문 15편, 한국 장편 7편, 한국 장편 다큐 6편, 국제 장편 5편, 5·18 특별섹션 5편, 온라인 상영 5편 등 모두 52편의 여성 영화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여성 감독들의 시선으로 본 5·18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5·18 특별 세션도 마련되었다.

한편 첫 단편 영화 경선을 진행한다는 것도 주목된다. 그동안 비경쟁 초청으로만 진행됐던 단편 부문에 일부 경쟁 부문을 도입한 것은 여성 감독들을 지원하고 여성 서사 영화 제작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여기에는 더 많은 여성 서사 출현의 바람도 담겨져 있다. 광주여성영화제 김채희 집행위원장은 “이번 단편 영화 경선을 통해 여성 서사를 다룬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독립 영화 감독들을 응원하고 싶다.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많은 영화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0년 시작된 광주여성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 영화를 비롯한 다양성 영화를 소개하며,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감독을 육성, 지원하는 데에 힘써왔다. 특히 여성 감독의 배출, 여성 캐릭터의 다양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평등 의제를 알리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전국구 그리고 국제적인 여성 영화 네트워크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여성 영화는 여성이 주체가 된 대안적인 담론이자 실천인 여성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여성주의의 치열한 담론의 장으로 기능함으로써 성별, 세대, 성적 정체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차이들의 만남의 현장이자 여성주의 이슈를 만드는 장이 된다. 여성 영화제가 이러한 여성 영화가 실제로 상영, 홍보, 배급되는 데에 역할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 문화와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을 우리는 광주여성영화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사이트

- * 광주여성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www.wffig.com>)
-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nhrck/222101959671>)

참고 문헌

- * 계운영·김영, 「한국 성평등 영화 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현대영화연구』 14(2),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8.
- * 김성희, 「여성주의 영상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 김숙현, 「2000년대 한국영화 장과 여성 영화 감독」, 『문화와 사회』 26(2),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 * 김지미, 「다양성이 상식이 되는 세계:2019년 여성 감독들의 한국 영화」, 『황해문화』 106, 새얼문화재단, 2020.
- * 변재란, 「여성, 문화 그리고 국제 영화제의 역할: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8,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 * 장지은, 「여성주의 영상 제작과 여성 영화제-대구여성영화제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7(1),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7.
- * 조혜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여성이론』 32, 도서출판 여이연, 2015.
- * 주유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의 한국 영화와 성평등 영화 정책에 대한 시론」,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6,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9.

2

무등농악전승보존연구회



광주의 원도심에서 쳐오던 마을굿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무등산권에서 명맥을 잇고 있는 용연마을의 농악을 복원하고자 이 여정을 시작했다. 실연과 인터뷰, 답사 그리고 텍스트 연구를 모두 병행한 살아있는 결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

송부중 · 김태훈 · 안혜경 · 황형주

무등산과 마을굿 그리고 무등산권 농악 살리기

김태훈 우리문화예술원 대표

광주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등산이다. 백두대간 호남 정맥의 맥을 이어 정점을 찍은 1,000m가 넘는 어머니 같은 산 무등산. 무등산 계곡을 중심으로 산 주변에는 나름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 광주는 이 문화가 뼈대를 이루고 주변의 풍부한 문화가 살이 되어 구성되었으리라. 큰 산을 중심으로 문화가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큰 산을 타고 문화권이 형성되기도 한다. 무등산은 호남권의 의미 깊은 중요한 산이다. 우리나라에 천제단이 세 군데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등산에 있다. 의재 허백련은 무등산 천제단에서 민족의 정기를 선양하고자 했다. 무등산은 편안하고 수수한 어머니 산으로 인식되어 있다. 동시에 매우 신령한 산으로 인식되어 있다. 산수동을 비롯해 무등산 아래 기슭에는 수많은 고택이 있다. 하지만 무등산 안쪽에는 함부로 고택을 잡지 않는다. 신령한 산 무등산



칠석마을 당산굿

은 천제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농악은 현재 광산농악만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광산농악은 광산군의 농악이었다. 그런데 광주가 당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되었고, 광산농악도 광주시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후 광주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정작 광주의 원도심에서 쳐오던 마을굿들은 제대로 보존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 농악이 용연농악이다. 그 외 마을들에는 본래 예전부터 쳐오던 굿은 없어지고 새로 배워서 치는 곳이 몇 곳 있을 뿐이다. 더구나 도심은 동사무소 자치 프로그램의 외부 강사에게서 배우는 모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광주굿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용연 마을의 용연농악

그동안 광주는 우도굿 지역으로 인식이 고정되어 있었다. 지역적으로도 호남 우도 지역에 가깝다. 그리고 광주 주변 평야 지대의 우도굿 명인들이 대도시 광주에 거주하며 활동을 하였으니 외부에서 보기에다 광주는 우도 명인들의 장으로 보였을 것이다. 실제 광주의 마을굿들은 광주가 대도시다 보니 거의 흩어지고 남아있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광주 원도심의 마을굿이 지금 우리가 보는 우도굿이었을까? 우도굿이니 좌도굿이니 하는 구분도 예전에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고 옛 명인들은 말씀하신다.

전라도 호남 지역을 서울에서 내려보며 임금이 계신 위치를 기준으로 왼편 산간 지대를 좌도, 오른편 평야 지대를 우도라 한다. 그래서 파발을 띄웠던 길 지금의 호남고속도로 좌우를 구분하기도 한

다. 그러나 그 지역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특히 농악에 있어 좌도 우도 구분은 지역의 구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좌도농악, 우도농악 보다 산간 농악, 평야 농악의 구분을 더 중요하게 본다. 농악의 형태들은 전혀 다른 멀리 떨어진 지방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 문화와 지형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 공간이 산간 지역이나 평야 지역이냐가 그 지역의 농악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맥을 이어 정점을 찍은 무등산, 이 무등산을 중심으로 중요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악도 무등산권의 산간 농악 흐름이 있음을 살펴야 할 것이다.

광주는 큰 산 무등산 아래 위치하고 있다. 주변의 평야 지대와 연결되어 있으니 당연히 평야 지대의 농악도 섞일 수 있지만, 그 뼈대가 무등산 산간 농악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광주시 내에서 우도 명인들이 활동하여 우도굿 인식이 강했지만, 마을에서 마을굿을 어떻게 쳤을까, 당산굿을 어떻게 쳤을까 살펴 봐야 한다. 그 곳은 무등산권의 산간 농악이었음을 바로 짐작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도시라 마을굿이 거의 사라져버렸지만 약간의 흔적과 대표적으로 용연 마을의 용연농악이 최근 10여 년 전까지 전승되어 왔다.

용연농악은 무등산권 농악의 특징을 확연히 보이는 대표적인 농악이다. 『동국여지승람』에도 용연 마을 이름과 기우제를 지낸 용연이 언급되어 있는 내력이 깊은 마을이다. 이 마을 농악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무등산농악의 형태를 좀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원도심 농악의 뿌리 무등산권 농악을 계승하고자 하는 모임 ‘무진’에 시내 여러 주민과 풍물 동아리 그리고 용연농악 단원들도 모두 함께하고 있다. 매주 모여 무등산권 농악 가락들을 연습하며 작년 2019년 마지막 토요일에는 YMCA 무진관에서 60명의 치배로 송년 풍물굿을 치며 의지를 다졌다. 하루빨리 무등산권의 옹혼하

던 풍물굿판이 재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용연농악을 중심으로 한 무등산권 농악이 옛 광주의 원래 마을굿이었음과 그 가치와 특징들을 본격적으로 찾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작업에는 그간의 무등산농악 관련 여러 작업과 활동 등을 기록하고, 이후 조사할 여러 자료를 찾고 모아보았다. 이후 보다 본격적인 작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긴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세심하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전남대학교 나경수 선생님, 목포대 이경엽 선생님, 경인교대 김혜정 선생님, 전남대 이용식 선생님, 조선대 서순복 선생님 그리고 용연농악 상쇠 박종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등산권 농악을 찾아

무등산은 큰 산으로 주변의 산들과 연결되어 있다. 무등산 주변의 농악들은 산간 농악으로 산과 연관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화순의 농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담양 곡성 등 연관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흔히 담양 장성을 우도농악 지역으로 고정해서 보는 견해가 많은데 담양과 장성도 산이 많은 지역으로 좌도농악 산간 농악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담양농악을 대표하는 죽산농악도 좌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존의 좌도 우도의 구분에 너무 간혀서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산간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은 산간 농악이 있을 것이고 평야가 넓게 펼쳐진 지역은 평야 농악이 있을 것이다. 평야 농악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산간 농악의 특징들이 있을 것이고 서로 교류되

고 융합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좀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곡 파편의 조합과 복원:

칠석농악과 용연농악 그리고 한천농악

필자는 2000년대 초반 고싸움 마을 칠석농악단을 지도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 칠석농악단은 너무 쇠약해져 있어 고싸움 행사를 치르기도 버거운 상태였다. 그래서 마을 농악을 활성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을굿을 살펴보고자 기본 몸짓 호흡 박자의 안정을 지도하며 외부 가락을 교육하지 않고 마을굿을 살폈다.

칠석마을은 당시 우도인 광산농악을 배우고 치고 있었다. 평야 지대에 인접해 있어서 당연히 우도굿 스타일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기질과 문화와는 매우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거칠고 격한 성향이 강하고 스스로 하는 말 중에 “옷돌 놈들 징 치듯이 해분다.”라는 말을 들먹인다. 옷돌은 칠석의 옛말이고 옷돌 마을 사람들 징을 치면 마구 두들겨 때려 징채가 부서지고 채가 부서지면 아무거나 잡고 막 때리려 하는 모습을 빗댄 말이다. 그만큼 격한 성향을 말한다. 스스로 옷돌 양반도 아니고 옷돌 놈들이라 하며 웃는다. 이 마을의 고싸움도 이름부터 차전놀이처럼 고놀이라 하지 않고 고싸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투적이고 격하다. 하여 농악도 무척 빠르고 급하게 친다. 우도농악 스타일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다. 도리어 좌도농악이 훨씬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농악단 내외는 두세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맞다 틀리다 분분하였다. 마을굿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주장

들을 자세히 들어보고 살펴보았다. 살펴보니 예전에 굿을 시작하던 시기가 각기 달랐다. 처음엔 연세 많은 분들의 말씀에 더 귀가 쏠렸으나 굿을 배운 시기가 더 중요하였다. 조사해보니 각각이 배운 시기는 각기 다른 외부 선생을 모시고 배운 시기였고 배운 굿이 각기 다른 것이었다. 결국 모두 마을의 본래 굿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마을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질굿 이야기를 공통으로 하였다. 안타깝게도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각각 조금씩 파편을 기억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 질굿의 파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구음들을 모두 채집하여 분석하였다. 혼합 박으로 된 매우 특이한 질굿이었다. 파편들을 분석하고 조합하여 가락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들을 확인하여 모두 맞는다고 확인을 받아 마을의 질굿이 복원되었다. 모두들 마을의 질굿이 복원되었다고 너무들 좋아하였다.

복원된 질굿과 마을의 굿가락 넘기는 스타일로 가락을 구성하여 질굿 마당을 짜고 주로 치던 몇 가지 마당을 함께 구성하여 짧은 판굿을 완성하여 연습하였고, 이후 칠석농악단은 상당히 활발하게 굿을 쳤다. 그러나 그 시기 마을 근방으로 새로 이사 온 사물놀이팀이 있었고 구청에서 마을 농악 교육을 멈추게 하여 칠석농악 지도는 멈추었다. 다음 해부터는 그 팀에서 교육하여 다시 우도굿으로 바뀌어 버렸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자료들을 정리하다 오래전 용연마을 촬영 영상을 보게 되었다. 설 명절에 마을굿을 친다고 하여 가서 촬영하였던 영상이다. 비디오카메라로 직접 찍은 영상으로 굿 치고 나서 상쇠와 인터뷰를 하며 설명과 연주도 찍었다. 그 영상을 미처 분석하지 못하고 두었는데 다시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귀에 익은 가락이 있었다. 질굿이었다. 용연농악의 질굿이 칠석농악에서 복원했던 그 질굿과 거의 똑

같았다. 그 독특한 가락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가 하고 놀라며 여러 번 확인해보았다.

이렇게 무등산권의 농악이 화순, 담양, 곡성 등 주변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란 추측대로 주변에 널리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용연마을 상쇠는 옛날 어른들이 용연농악과 한천농악은 형제굿이고 완전 똑같았다고 말했다. 이쉽게도 한천농악은 10여 년 간 우도농악을 배워 본래 마을굿과 다른 굿을 오래 치다 보니 많이 변화되어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한다.

20여 년 전 박종선 상쇠가 화순 한천에 간 적이 있다 한다. 당시 노성대 씨와 만났을 때 한천은 이렇게 친다며 굿을 쳐보였고, 박종선 상쇠가 이상하다 좀 다르다고 하니 한번 쳐보라고 하여 용연굿을 쳤다. 그랬더니 실은 우리 마을도 예전에는 그렇게 쳤다며 어떻게 옛날 굿을 아느냐며 놀라워했다고 한다.

용연농악 박종선 상쇠는 아버지가 전대 상쇠였고 어렸을 때부터 굿을 쳤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굿을 쳐왔기 때문에 오래된 옛 가락과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 용연 마을의 기우제 이야기며 마을에 얹힌 이야기들 중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다.

풍물놀이패 굴림

풍물놀이패 굴림은 1994년 4월에 결성된 단체로 꾸준히 좌도굿을 치며 무등산과 광주의 굿을 연구하여 왔다. 2003년 농악이 약해져 마을굿을 치지 못하고 있던 칠석마을에 마을굿 당산굿을 쳤던 적이 있다. 마을굿을 다시 치게 하기 위한 힘 실어주기였다.

이때 풍물놀이패 굴림이 중심이 되어 칠석농악단과 용연농악단이
다 함께 모여 합곡으로 칠석마을 당산굿과 함께 마을굿을 쳤던 것
이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용연 마을에서 함께 모여 용연마을굿을
치기로 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산수동에 모여 굿을 치기로 약속하
였었다. 한나절 내내 마을 어귀에서 문굿부터 시작하여 마을 곳곳
을 돌며 당산굿과 우물굿 마당밭이와 판굿을 쳤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떡과 두부국 안주 등에 막걸리를 마시며 뒷굿 군영놀이까지
결판지게 놀았다.

당시 굿판을 알리는 인터넷 게시글을 캡처했다.

굿판 한번 열어봅니다.

치배들 굿전 내놓고 굿칩니다. 그 돈으로 마을에서 돼지도 잡고 김치 담그고 해
서 고깃국에 든든히 속 채우고 막걸리 한 사발씩 축여가며.....

맘껏 굿 치고 놀아봅시다.

광주에는 예로부터 굿판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흔히 잘 알고 있는 우
도굿 성격의 굿판이고 하나는 무등산 주변의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 동부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좌도굿 성격의 굿판이다. 옛날에는 그제 좌도니, 우도니 하는 자제
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고, 단지 산간 지역의 성격과 평야 지역의 성격의
차이었다고 본다.

그중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굿이 광주 동부 지역의 굿으로 무등산 주변 지
원들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 굿은 화순 한천농악과 같으며 또한 고싸움
으로 유명한 칠석농악 또한 이 맥이다. 그리고 그 맥은 장성으로 또 담양으로 이
어져 있다.

풍물놀이패 굴림은 이러한 굿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용연마을과
칠석동에 굿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 이 마을들에서 굿판을 열어주기로 했다. 치배
들이 각기 굿전을 내고 그 굿전으로 마을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열어보기
로 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용연마을과 칠석동 두 굿패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주
변의 나주 장성의 굿패들도 함께 와서 술 한 잔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의미를 공감한 다른 지역의 굿쟁이들도 기운을 모아주고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전주, 남원, 광양 등등 악기 메고 오는 사람 놀러 오는 사람...
이 좋은 굿판에 함께 와서 흥겨이 놀아봄이 어떨는지요...

11월 30일 2시 굿 시작

장소: 남구 칠석동 (고싸움 전수관)



모두들 고향에 흥겨워하며 다음 고향을 기약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해에 용연 마을 상황이 어려워지고 용연농악단 구성원들이 대폭 줄어들며 용연마을굿은 치지 못했다. 결국 용연 마을과 칠석 마을에서의 마을굿들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도 시내에선 굴림이 고향들을 열고 두 마을 분들도 여러 차례 함께 참여하였다.

무등산권 농악 살리기 운동

두 마을의 마을굿이 이어지지 못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러나 무등산농악 중심 기둥인 용연농악이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된다는 절실한 생각에 다시 마을굿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 마을 상쇠와 의논하여 용연마을굿을 진행하였다. 사)우리문화예술원과 굴림 회원들이 돈을 모으고 참가자들이 스스로 고향을 모아 자체적으로 모든 경비를 만들었다.

굴림을 중심으로 무진농악단과 여러 고향이들이 모여 용연 마을에서 당산굿과 집집이 마당밭이 그리고 판굿 뒀까지 한 판을 쳤다. 대형 가마솥을 가져가 걸어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 한 판을 열었다. 마을에 연로한 노인분들뿐이라 일할 손이 없어 모두 직접 준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며 힘을 합친 진정한 대동구판이었다.

이날 용연농악단 식구들이 함께 나와 어우러졌고 이후로는 모여서 연습도 하고 다시 마을 농악을 되살리자고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이후의 무등산권 농악 살리기 활동에 용연농악단원들이 모두 함께 나서고 계신다.

용연 마을 당산굿





용연마을 당산굿



용연 마을 마을회관 마당굿

2000년대 중반 전국 민속예술 축제에 보낼 팀을 뽑는 광주광역시 민속예술제가 옛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다. 김동언 선생님의 권유로 굴림이 참가한 적이 있다. 이때 굿을 광주 동구 무등산 주변의 마을굿을 표방하며 광주 동부굿으로 참가하였다. 이름이야 임의로 붙였지만, 그 간의 무등산권의 좌도 스타일 가락들을 모아 썼던 것이다. 그런데 심사평에서 굴림은 단연 최고의 기량과 판을 보였다며 인정하고는, 그러나 광주는 우도 지역이므로 좌도굿이라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참가팀이 거의 다 동아리들이었고 대부분 우도를 바탕으로 한 창작에 가까운 판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팀은 되고 좌도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실상이 이러한 상황이라 무등산권의 농악들과 광주 원도심의 마을굿은 살아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러한 편협된 좌우도의 구분과 인식에서 벗어나 본래 광주의 뿌리 문화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용연농악이 명맥을 잇고 있으니 용연농악을 중심으로 무등산의 농악들을 찾고 그 흐름과 연계성들을 연구해가야 할 것이다.

가락의 실제

무등산 농악들의 가락 맛은 매우 찢득찢득한 맛이 특징이다. 좌도 가락과 우도 가락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형식들은 제외하고 그 가락의 맛깔과 몸짓과 음악적 특징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같은 가락을 쳐도 좌도에서는 가락들이 따복따복 모아져 잔가락이 대박에 짧게 붙어 장단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비트감도 강하고 움직임에 굴림이 강하여 위아래 굴신이 강하다. 반면에 우도 가락은 같은 가락도 풀어서 치며 자글자글하게 이어지며 흐르듯이 친다. 대박과 대박 사이에 긴 빈 곳이 없이 편안하게 잔가락이 채워진다. 위아래 굴신 보다 흐르듯이 멋을 낸다.

예를 들어 삼채가락을 팽과리로 치면

1 2 3 4 .
재 쟁 그재 쟁 그쟁 그쟁 재 쟁 그. 좌도는 이렇게 치고
재 쟁 그재 쟁 그쟁 그쟁 재 쟁 그. 우도는 이렇게 친다.

잔가락의 위치가 좌도는 더 뒤로 짧게 붙어있다. 강약도 좌도가 좀 더 분명하게 치고 우도는 소리 하나하나 강약의 대비보다는 흐름을 타고 강약의 급격함이 덜하다. 그런 면에서 무등산농악의 삼채는 산간 농악답게 더욱 좌도답게 친다. 그런데 이 맛이 무척 구성지다. 투박한 듯 하지만 매우 세련되고 처내기가 쉽지 않다.

무등산농악의 삼채

1 2 3 4 ,
재 쟁 그쟁 그쟁 쟁 그쟁 재 쟁 .
쟁 패 쟁 그쟁 쟁 그쟁 재 쟁 .

용연 마을은 이 가락을 조금 느리게 매우 찢득찢득 늘려가며 잔가

락을 짧게 붙여 친다. 몸짓도 한 박 한 박 굴신을 분명히 하며 합이 분명하게 떨어진다. 실제 연주 시에 그 맛이 확연히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 치는 삼채가락은

일반적으로 주로 치는 삼채

1 2 3 4 .
재 쟁 그재 쟁 그쟁 그쟁 재 쟁 그.
쟁 패 재 쟁 그쟁 그쟁 재 쟁 그.

이 가락을 중심으로 많이 치는데 무등산 농악은 독특하게 위의 가락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칠석농악의 질긋과 용연농악의 질긋 정리

무등산권 농악의 질긋은 현재 두 가지가 남아있다. 하나는 칠석동에서 복원된 가락과 똑같은 용연농악에서 현재 이어져 치고 있는 가락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용연농악에서 오래전 옛날에 썼던 가락으로 상쇠만 겨우 기억하고 있는 가락이다. 이 두 가지 질긋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정리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여기는 현재 치고 있는 질긋 가락만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본다.

무등산 질긋

재 쟁 쟁 .	풍류 반 장단
쟁 그쟁 재 쟁 .	풍류 반 장단
쟁 쟁 쟁 그쟁 .	풍류 반 장단
쟁 쟁 그재 쟁 재 쟁 .	호허긋 한 장단
쟁 그쟁 그재 쟁 그재 쟁 .	호허긋 한 장단
재 쟁 그재 쟁 그재 쟁 .	호허긋 한 장단

이 질긋은 가락이 매우 독특하고 그 맛깔 또한 무척 구성지며 재미있다. 더구나 혼합 박자 바탕의 가락이라 패턴이 잘 노출되지 않으

며 묘한 이끌림을 자아낸다. 이러한 귀한 가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무등산권의 농악들이 많이 되살아나기를 염원한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무등산권 농악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조언을 구하였다. 이경엽 교수님과 김혜정 교수님은 1990년대에 담양과 화순 지역의 모든 마을을 돌며 농악을 조사하였다. 이 자료는 무등산권 농악 연구의 중요 자료로 이후 추가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용연 마을의 여러 민속문화 관련 활동 자료의 세심한 자료 확보가 우선 시급하다. 특히 옛 60년대부터의 방송 자료들도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고 문화원을 비롯해 개인들의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근 20여 년 전의 자료는 몇 있으나 그 이전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

동시에 용연 마을의 기우제를 비롯한 관련 자료 또한 고서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다.

나경수 교수님은 광주의 화전놀이는 관에서 했던 대형 화전놀이 기록이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 필요성도 제안해 주셨다. 농악도 분명 함께하였으니 함께 콘텐츠로 살려 광주의 중요 문화 콘텐츠로 복원해 보라 제안하셨다.

이용식 교수님은 무등산의 굿들을 조사하며 무궁 자료들에서 무등산 농악과 연관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기로 하였고, 서순복 교수님은 도시 공간에서 무등산 농악이 복원되고 마을에 새로 자리 잡는 과정에 현재의 마을 공동체 정책이나 문화 정책과 연관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용연 마을의 상쇠이신

박종선 상쇠께서는 함께 용연농악 기록 작업을 하고 계신다. 또한 용연 마을과 무등산에 관련해 여러 증언들을 해주고 계신다.

우도 지역으로만 인식되던 광주라 이번 과정을 통해 무등산권의 산간 농악이 광주의 원래 마을곳이었다는 재인식과 이 농악 연구의 시작이 가장 큰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여 이후로 보다 본격적인 작업이 이어져 진행되는 데에 여러 힘이 모이기를 바란다.



광주말을 더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싶은 청년들의 모임이다.

‘말’이 광주의 특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작년에는
사투리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홍보물도 제작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실험적인 활동 그룹이다.

-

한민아 · 강채서 · 안도영 · 정은아

#1

광주말과 청년 사이, 광주말 오! 쇼-잉 Oh! show-ing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 참여자 단체 사진

사투리를 가지고 축제나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아무래도 잘 상상이 가지 않을 것이다.
사투리는 표준어도 아니고, 시골에서
주로 쓰는 할머니 말처럼 보는 국한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투리(광주말)를 활용해 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쇼를 한바탕 벌인 곳이 있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 백년대계 사업에
참여 중인 '아따그라제'팀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광주말 오! 쇼-잉(Oh! show-
ing)이라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말 오-쇼잉

Oh show-ing ◇◇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은 말 그대로 광주말에 대해 우리가 좀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가 자주 보는 TV 예능처럼 영상 자료, 퀴즈, 게임에 직접 참여하고 즐기고, 한 번쯤 써봤을 법한 말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참여자들이 광주말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괜찮은 말이었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의도였다.

총 2부로 진행한 광주말 오쇼잉은, 1부 보쇼잉과 2부 하쇼잉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보쇼잉에서는 영상을 시청하며 광주말을 듣는 귀를 풀어주고,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잊고 있었던 말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2부 하쇼잉은 광주말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게임에 참여하고, 직접 퀴즈를 내보고, 조금 오래된 옛말을 들춰보면서 복합적인 상황이나 느낌까지 표현이 가능한 광주말의 독보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다.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은 광주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광주말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광주말에 대한 관심도를 좀더 확보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아따그라제’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아따그라제 인터뷰 1 한민아

광주말과 접목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말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기회가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부터 광주말을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말이 있는 반면에 사라진 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식과 활용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년들도 광주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 광주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광주말이 재밌고, 아름다운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원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도 재밌고 즐겁게 광주말을 접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광주말이 주제가 되어야 하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TV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들도 조합해 보는 과정을 거쳐 광주말 오쇼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말이라는 소재가 문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에

적절하다고 본 이유는?

광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광주말을 쓰는 것이 당연한데 광주말을 소재로 프로그램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광주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한 표현, 억양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윗세대가 사용하던 오래된 말들 중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의 감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우리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에 부족함은 없지만, 지나가버린 광주말에는 복합적이고 오묘한 감정과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 보석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재미있게 상기시켜 준다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참여자들에게도 팬츠는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광주말이 멸종 위기 동물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멸되거나 사라진 것에 대한 아까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말 오쇼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본 적, 사용해본 적 있는 말을 들려주고, 처음 들은 것 같은 말을 들려주고, 다른 말과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아쉬움을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광주말을 스스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지키고 보존하자고 호소하는 것보다 광주말의 중요성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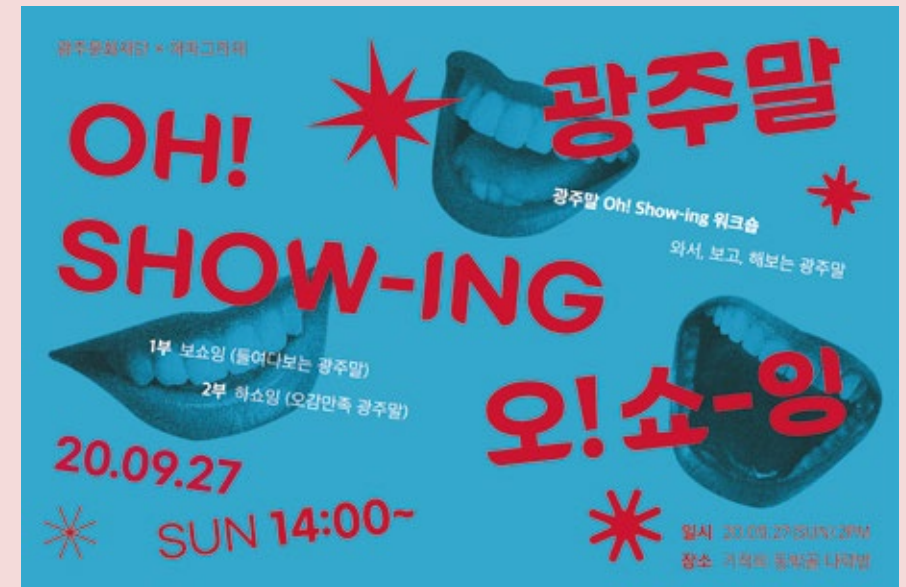
 **아따그라제 인터뷰 2** 안도영

워크숍을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광주말이라는 광주 지역 사람들 모두가 공감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와 확산을 기대한 부분도 있고, 요즘의 감성으로 즐겁게,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광주말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도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민한 부분은 참여 대상이었는데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청년 세대였습니다. 요즘은 ‘판플레이’라는 트렌드로 즐길거리를 찾는데, ‘판플레이’란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판)를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원하는 콘텐츠가 없다면 직접 만들기도 하는 청년들의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트렌드와 기획 의도가 잘 맞아서 참여 대상은 청년층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대상을 청년층으로 생각한 만큼 청년들이 (우리가) 좋아하거나 재밌어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광주말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분위기 보다 즐기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광주말을 들어보고 사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고 청년들이 여가 시간에 예능을 자주 즐기기 때문에 예능 포맷을 연구하고 조합해 보는 것으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광주말 오-쇼잉(Oh show-ing) 포스터 이미지



지나가버린 광주말에는 복합적이고 오묘한 감정과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 보석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재미있게 상기시켜 준다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참여자들에게도 괜찮은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능의 포맷을 활용한 만큼 참여자가 광주말에 대하여 재미와 애정을
느끼되, 우스꽝스럽게 표현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몸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게임보다는 퀴즈와
토크쇼의 형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했던 것은 광주말 오소잉에 담길 광주말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 것도 흥미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뻔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어릴
적) 많이 사용했던 말, 어르신들이 사용하셨던 들어봤을 수도 있는
표현, 다른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느낌을 담은 말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말 요소잉에서 접하는 표현을 통해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참신하다고 놀라기도 하는 반응을 원했기 때문에 표현을
선정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워크숍 홍보물의 콘셉트가 있다면?

홍보물도 청년 세대가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련되고 힙한
느낌의 눈에 띄는 소재와 디자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온이
연상되는, 한눈에 확 들어오는 배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재에 대해
지루하게 느끼지 않도록 강렬한 색감을 택했습니다. 특히, 말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인 만큼 글씨가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미지를 보면
지루한 워크숍이 아닌 참여하고 싶은 파티의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디자인을 바탕으로 느낌 있는 단체 티를
제작하여 기대감을 주고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워크숍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광주말 오소잉을 기획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투리’라는 말보다 ‘광주말’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게 들리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연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광주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광주의 말’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기도 하고, 사투리라는 표현은 표준어에 상대하는 표현으로 지양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투리로 묶어 표현하지 않고 광주말이라고 표현하다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거나, 조금 더 애착을 가지게 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광주말 오쇼잉 진행 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광주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광주말의 친숙함과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주말 오쇼잉을 준비하면서 수집한 말들은 어렸을 때는 잘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쓰는 말, 어르신들께서 자주 쓰시는 말을 위주로 하며, 처음 듣는 단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새로운 말을 직접 발굴하기도 하는 재미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렵다, 웅석하다, 되다 등 이 말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겠다 싶은 복합적인 느낌의 표현을 채택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광주말 표현의 특별함도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오묘한 표현임에도 이해도가 높았고 광주말의 특별함에 대한 공감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인데요. 예능 느낌을 살리는데 포커스를 맞춰 우스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라이어티 예능, 퀴즈쇼, 토크쇼, 체험 예능 등 여러 가지 포맷은 예능을 보고 광주말이 희화되지 않을 만한 포맷을 찾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퀴즈 게임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가볍게 느껴지지 않도록 진행하는 중간중간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잊혀진 말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멘트를 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할수록 재밌고 귀하게 느껴지는 광주말이기에 우리가 느낀 바를 최대한 솔직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광주말을 놀이로 풀어보는 시도를 위해 고민한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사뭇 진지함이 느껴진다.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은 지난간 세대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광주의 말을 지금 세대의 것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애정 어린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말이라는 광주의 고유 자원으로 만든 애정 어린 놀이판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들여다본다.

■ 아따그라제 취재 강채서

광주말과 청년 사이,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

국어사전을 들춰보면 표준어는 국가에서 표준이 되는 말, 사투리는 지방에서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라고 정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 쉬듯이 광주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이 단순히 표준어가 아닌 말로 떨어처럼 분류된다는 것은 참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광주말은 촌스럽다는 이미지가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에게 요즘의 형태로 광주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체감하게 하는, 그리고 최대한 즐기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을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말을 ‘할머니의 말’이 아닌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된 기획 의도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닿고자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은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함께한다면 감탄할 만한 쇼를 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고, 마침내 하나둘 기와 아래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마스크로 인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눈빛에 가득찬 기대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랑 달라서 좀 놀랐어요. 광주말이 주제라고 했는데 굉장히 세련된 배너가 있고, 한편으로는 한옥이라 참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온고지신의 면모를 엿보았다는 참가자의 말과 함께 순조롭게 워크숍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광주말을 명찰에 같이 써보라는 말에 당황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란히 갈아입은 티셔츠에 있는 입술들이 말을 하듯 다들 두런두런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찬히 어때? 이걸 표준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꽤 좋은? 관참은 이런 말이잖아, 맞지?” 자신을 광주말로 표현하려면 이 정도는 되야 한다는 말에 깔깔 웃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쓰는 말을 고민해서 쓴다는 것이 어색해 보이기도 했지만 금세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찰을 만들고 배경 사업, 기획 의도,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청년들에게 요즘의 형태로 광주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체감하게 하는, 그리고 최대한 즐기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을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말을 ‘할머니의 말’이 아닌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된 기획 의도였습니다.



일정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1부의 시작인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라도와 광주말 퀴즈를 서울 토박이가 알아 맞춰보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영상 속의 서울 토박이들은 문제를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참여자들은 영상을 보는 동안 속닥속닥 문제를 맞춰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을 마치고 참여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상 속의 문제 중 어려운 것이 있었나요?', '서울 토박이들이 지역말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맞추지 못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영상 속의 퀴즈는 어렵지 않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서울 토박이들이 문제를 하나도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아함을 드러냈습니다. "틀릴 정도 문제는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나 모른다는 게 더 신기하다." 등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광주에서 살고, 광주말을 잘 아는 만큼 광주말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광주말 오! 쇼-잉(Oh! show-ing)의 기획 의도를 전하며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았습니다.

1부 보쇼잉의 OX 퀴즈는 광주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가볍게 파악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퀴즈라는 말에 모두 의욕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OX 퀴즈 시간엔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당사자가 되어봤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답을 적은 스케치북을 들어올렸다가 "오답"이라는 멘트에 시무룩해 하며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답"이라는 발표에는 스케치북을 흔들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정답에 대해서 해설을 하기도 전부터 왜 그런지 열띤 해설을 풀어내는 모습에 진행자들과 참여자의 경계 없이 모두 웃으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부 보쇼-잉의 첫 코너가 지나갔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코너가 궁금하다고 한 목소리로 외쳐 2부인 하쇼-잉은 바로 이어졌습니다.

2부의 시작은 자유 토론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슷한 두 개의 광주말을 구분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광주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들의 미묘한 경계를 설명하는 것을 문제로 내니 다양한 토론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여럽다랑 웡삭하다...? 둘이 어떻게 다른 건디?”

“아니 니는 그것도 모르냐-!”

자연스럽게 다들 입에서 점차 광주말이 나오며 열띤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여럽다는 약간 그 낮간지럽다? 아- 이걸 표준어로 뭐라고 말하제....창피하다? 썩스럽다? 암튼 그런건디 좀 긍정적인 어조!” “맞아 맞아 그리고 웡삭하다는 약간 쫄잔하다? 그런 부정적인 어조가 더 강하제!”

광주 토박이부터 전남, 경상도까지 다양한 지방 사람들이 모이니 설명과 반응이 다채롭게 갈렸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왔다는 B씨는 웡삭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며 광주말 자체의 독창성과 독보적인 가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듣고, 자주 쓰던 말인데 구분해서 보니깐 이렇게 의미가 달라서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표준어로는 길게 표현될 만한 것들이 짧게 표현이 가능한, 광주말의 독보성을 짚어보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갔습니다.

청년들이 즐거워하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진행한 퀴즈의 반응은 실제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각종 예능을 토대로 지역말로 바꾼 노랫말의 원래 노래를 맞추는 게임 영상을 보는 동안 참여자들은



아따그라제는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에게 광주말이 자신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독보성을 기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광주말이라는 소재를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게 예능형 콘텐츠로 풀어냈더니 특별한 거부감은 없었으며, 오히려 애정과 적극성을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각자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오래 살았거나 조부모님과 같이 산 사람들의 경우 “이게 광주말이라고? 표준어가 아니라?”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광주말이 자신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말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니 세대로 가를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간단한 퀴즈의 경우 왜 저것을 맞추지 못하냐고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10대를 경상도에서 보냈지만 20대를 광주에서 보낸 A씨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이며 ‘자신도 이제 광주 사람 다 되었다’고 웃으며 자랑스러운 얼굴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광주말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문제를 내고 서로 맞추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코너를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광주말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양한 광주말을 미리 조사하고 준비했던 나눠줬던 자료를 나눠주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니 근디, 그 뭐냐, 이 말을 뭐라고 해야 할까?”

“원디 원디~ 아 그거는 이렇게 말하든 되제!”

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은 직접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도 하며 광주말을 찾아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광주말 자료를 보면서 광주말 표현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의 이미지를 지적하며 자신은 긍정적인 말을 찾아 문제를 내고 싶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코너에선 특히 조부모님들과 살아 광주말에 많이 배웠던 참가자들이 익숙하게 광주말로 바꾸는 모습을 보이며 왜 광주말 사전이 없냐는 적극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뽕짝 다가와 그랴 오을치 오을치 이 늬아...? 이게 뭘 노래 가사여?”

“뽕짝은 그 가까이 오라는 소리잖아.. 음....”

“오을치 뭘야 완전 웃겨!!”

“정답은 바짝 다가와 그랴 옹지 옹지 boy!!! 레드 벨벳의

Rookie입니다~~~!”

“아 뭐야!!! 맞출 수 있었는데!!!!”

“와 근데 진짜 잘 바꿨다... 나도 광주말 마스터하고 싶어”

노랫말을 넘어서 영화 대사를 바꿔기도 하고, 왜 광주말로 부른 노래는 없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광주말의 가치를 알고 보존을 해야 우리도 이렇게 놀 수 있지 않겠냐며 부산 래퍼가 부산말로 랩한 영상을 자발적으로 시청하였습니다. 광주말을 세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이 더 어릴 때 듣거나 사용했던 표현을 떠올렸고 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추억, 어릴 적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광주말이 스며드니 자신들도 모르게 놀장을 만들어내는 ‘판플레이’가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퀴즈의 뜨거운 열기를 가라앉히고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니 다들 아쉽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좀더 길게 하면 좋겠다, 이 재밌는 걸 우리만 하니깐 아쉽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해봐야할 텐데라는 반응들이 오가며 오늘의 활동 소감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대한 광주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광주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지금이자 미래라며 ‘항시여’라는 답변을 쓴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싸목싸목 하다본게 장하게 재밋드만요잉’이라는 답변 등 후기까지 모두 광주말에 젖어들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따그라제는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에게 광주말이 자신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한다면 독보성을 기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광주말이라는 소재를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게 예능형 콘텐츠로 풀어냈더니 특별한 거부감은 없었으며, 오히려 애정과 적극성을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이에 단순히 보존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 흥미를 유발하고 애정을 느끼게끔 하는 문화 기획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말에 대한 연구가 적은 편이고, 미디어로 인해 부정적인 어조가 많이 퍼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각자 지역말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서로 교류한다면 지역말은 더 이상 사투리라는 틀 안에서 비하되는 분위기가 아닌 지역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광주말은 단순히 이전 세대의 것만이 아닙니다. 백년대계라는 이름답게, 광주말의 미래와 보존을 위해 지역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젊은 세대인 청년의 시각과 기존 세대의 경험이 어우러지는 융합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말은 단순히 이전 세대의 것만이 아닙니다. 백년대계라는 이름답게, 광주말의 미래와 보존을 위해 지역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젊은 세대인 청년의 시각과 기존 세대의 경험이 어우러지는 융합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따, 광주말 편하게 쓰고 잡다!

광주말을 활용한 공공 캠페인 제작 및 실행



광주말로 하문

더 오져브러야



아따그라제의 온라인 대화방에 하나의 현수막 사진이 등장했다. “오매 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볼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브러라!” 지난 추석, 광주 광산구 송정역 앞에 설치된, 명절 이동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이었다. 명절에 맞추어 지역 방문을 환영하는 문구 대신 방문을 자제하는 현수막이 제법 서운할 법도 하였지만, 지역말을 활용한 현수막이 솔찬히 유쾌하면서도 공감되어 우리는 한동안 웃음보가 터져 나왔다. 다른 지역 사례도 찾아보니 대전, 부산, 전남 등 다양한 곳에서 지역말을 활용하여 현수막을 내걸었다.

캠페인이나 광고에서 지역말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이철우(2015)는 최근 들어 방송 광고 심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인터넷 매체 등에서 광고 언어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광고 내 지역말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광고 등에 사용된 지역말은 웃음 유발 기제로 작용하여 호감도를 형성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관심을

연결시키는 주목성, 차별화,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로 이어진다.

지역말이 가지는 이질적인 모습에 의해 일시적인 웃음을 보이며 호감을 향상시키면, 곧 메시지에 공감하게 되고 이후 지역말에 익숙해지면서 지역말에 대한 낯선 감정이 해소되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연결된다.¹

이에 따라 지역 곳곳에서는 지역말을 활용한 캠페인이나 공공 브랜딩을 하고 있다. 슬로건, 행사, 캠페인 등에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기 수월한 방법 중, 지역말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전시는 기존의 브랜드 슬로건 ‘이츠대전(It’s Daejeon)’ 대신, ‘대전이 곧 당신이다’라는 의미와 충청도 지역말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대전이쥬(Daejeon is U)’를 사용하고 있다. 부산 자갈치 축제는 경상도 지역말에서 따온 ‘오이소·보이소·사이소’라는 슬로건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전에서는 ‘타슈’라는 이름의 공영 자전거도 있다.²

우리 광주 역시 지역말을 활용한 브랜딩을 시도하고 있다.

무인 공영 자전거의 명칭을 ‘타랑께’로 정했고, 광주 관광은 ‘오매광주(五魅光州)’를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말 중 하나인 ‘오매’라는 감탄사와, ‘맛, 흥, 멋, 정, 어울림’으로 정의되는 광주시의 다섯 가지 매력을 더한 말이다. 이 외에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공연예술 축제 이름으로 ‘그라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기갑(2017)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우리 언어문화의 한 유산인 지역말이 문학, 문화, 산업 등에 활용되는 것은 곧 우리말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며, 외국어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훨씬 낫설고 색다른 느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생소함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면서 동시에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는 등, 친숙함과 낯섦이라는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부여하며 광고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³

1

이철우, “광고에서의 방언 사용 전략”, 한민족어문학 69권0호(2015), pp.115-139.

2

윤희일, “맛깔난 사투리~ 지자체 브랜드로 뜬당께”, 경향신문, 2020.10.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82109015

3

이기갑, “표준어와 방언의 오늘과 내일”, 새국어생활 27권1호(2017), pp.51-66.



야 있냐, 우리 광주말 캠페인 해보든 어찌냐? ◇◇

이렇게 지역말이 광고나 캠페인에 주는 효과를 보며, 아따그라제는 2030 세대의 새로운 시각이 결합된 광주말 캠페인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광주말을 활용한 판플레이도 짜보고, 광주말이 활용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고민했다. 광주에 대한 깊은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광주에 대한 애정이 그득 담긴 우리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이제까지의 광주를 어른들이 많이 보여주었다면, 앞으로의 광주, 그리고 앞으로의 광주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광주말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런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광주말이 공적인 범위에서 활용된다면, ‘광주’라는 지역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고, 광주말을 활용하는 빈도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광주말이 조금 더, 광주에서 잘 이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캠페인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관공서에서 내건 현수막에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 아요?’라고 쓰인 문구를 봤다. ‘아요?’라는 전라도 말투가 오디오 지원되는 듯 귀에 착 붙는다. 딱딱하고 건조하게 쓰인 홍보 문구보다 훨씬 친숙하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전라도 말에 깊은 애정을 지닌 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신 내용이었다.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도 지나치듯 읽었던 현수막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관공서에서 오타를 낸 현수막을 걸었다냐’ 싶었는데 소리 내어 읽으니 광주말이었다. 서로 억양을 살리며 현수막을 누가 더 잘 읽나, 한껏 상기되어 떠돌고 있었는데, 문득 더 많은 광주말이 슬로건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광주말을 활용한 공공 캠페인 실행 과정 ◇◇

공공 캠페인도, 지역말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역성을 드러내지 않은 캠페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광주말을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공감과 유쾌함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주말을 활용한 공공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광주말 캠페인을 결합해 볼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광주말을 활용한 공공 캠페인이 광주시민에게 소위 ‘표준어’로 만들어진 캠페인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이의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했다. 그래서 광주말을 활용한 캠페인 포스터와 표준어를 활용한 캠페인 포스터를 동시에 만들어서 광주시민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그러기엔 어떤 콘텐츠의 캠페인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했다.

캠페인 주제 선정

우선, 공공 캠페인 주제로 삼기 위한 적절한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했다. 무엇보다 표준어와 광주말을 나란히 두었을 때, 차이를 두지 않는 평등한 주제가 필요했다. 또한, 세대와 무관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서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여야 했다. 또한, 시기적,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공통의 주제로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이어야 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제이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광주말 문구 선정

불법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지 마세요.”

이와 같은 말을 광주말로 변경한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말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상황과 격에 맞게 쓰는 것이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이다. 캠페인이든 프로그램이든 억지로 지어내지 않고, 삶의 맥락을 떠나지 않고, 지역말이 지닌 본래의 뜻과 정서를 잘 실어내길 바란다.”

우리가 캠페인을 구성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 그랬다. 광주말을 억지로 배제할 필요가 없듯이, 광주말을 강제로 권장할 필요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지역말인 만큼, 캠페인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했다. 억지로 적혔다는 느낌을 주어서 안 되었다.

캠페인에 주로 사용되는 유형은 일반형, 경고형, 광고형, 감시형, 호소형 등이 있었다. ‘~하지 마시오’와 같은 일반형은 ‘~을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와 같은 경고형, ‘(CCTV 등) 감시 중’과 같은 감시형, ‘제발 ~하지 마시오’와 같은 호소형이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광주말을 활용하였을 때 너무 공격적이거나 경고성인 문구를 자제하기로 하였다. 특히, 광주말 속에는 ‘어렵다, 웅식하다, 징허다’와 같이 표현이나 내용에 부정적으로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광주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해 부정적인 표현의 광주말 활용은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사진 1
쓰레기 투기 금지 포스터(표준말)

사진 2
쓰레기 투기 금지 포스터(광주말)

유쾌하게 공공의 메시지를 전달하되,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억양 위주로 구성되어 읽지 않으면 광주말인지 인식하기 힘든 표현보다는, 우리 지역 고유의 감탄사를 활용하여 공감할 수 있는 표현도 꽤 괜찮을 것 같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구는 다음과 같다.

“기언치 여따 쓰레기를 버려야 쓰것소? 도로 가져가쇼잉”

그대로 풀자면, ‘기어이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야겠나요? 다시 가져가세요’라는 말이다. 풀이한 표현을 읽자니 밋밋하고 맛이 없다. 생생한 느낌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야 쓰것소?’ ‘가져가쇼잉’과 같은 광주말 표현을 읽으면 누군가 내 귀에 외치는 느낌을 준다. 생동감

있고, 정겹고, 권있다.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지 마시오.”라는 직설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감정에는 직설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에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의 형태를 더하고, 미화원 색감 등을 활용하여 포스터 2종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포스터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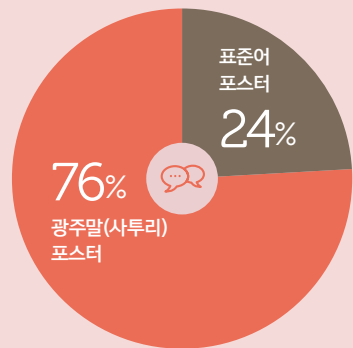
포스터 선호도 조사

우리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표준말을 활용한 캠페인 포스터와 광주말을 활용한 캠페인 포스터를 함께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더 선호하는’ 포스터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해당 포스터를 선택한 이유와 다른 포스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각 포스터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물었다.

결과는, 4명 중 3명꼴로 광주말이 쓰인 포스터를 선택했다.

광주말 포스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더 흥미롭게 느껴져서’였다. 이들 중 표준말 포스터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식상하다고 느껴져서’였다. 반대로, 표준말이 쓰인 포스터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다음의 예시 포스터를
보고 마음에 드는
포스터를 골라 주세요.



쓰레기 투기 금지 포스터
선호도 조사

‘이해하기 쉬워서’였다. 그리고 표준말 포스터를 선택한 사람이 광주말 포스터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이 어색해서’였다. 주요 차이는 지역말이 공공 캠페인에 등장했을 때 느껴지는 ‘낯섦’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었다. 표준말 포스터를 선택한 경우에는 낯섦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그리고 광주말 포스터를 선택한 이는 낯섦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인원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광주말에 대한 ‘낯섦’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각각의 포스터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물었다. 광주말 포스터를 선택한 사람들의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광주 내에서 사용하는 포스터라면 광주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표준어 경고는 더 딱딱하게 느껴진다.
- 매번 표준어로 된 것만 봤는데, 지역말로 된 것이 뭔가 더 합해 보인다(‘합하다’는 표현은 개성 있다, 멋있다, 새롭다와 같은 2030 세대의 표현 중 하나이다).
- 구수하고 친근한 감정이 든다. 광주를 대표하는 포스터라는 느낌이 든다.
- 광주말 포스터는 친근하고, 따뜻하고, 내 지역이라는 느낌이 들고, 표준어 포스터는 평범하고 딱딱하며 타지역 느낌이 들었다.
- 음성이 자동 재생되어 흥미롭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재밌다고 생각될 것이다.
- 포스터가 새로워서 눈에 확 들어온다. 광주 억양으로 읽어보게 된다. 표준어 포스터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다.
- 광주말 포스터는 정감 있고 친근하게 타이르는 느낌이 들고, 표준어 포스터는 더 딱딱하고 훈계하는 느낌이 든다. 표준어 포스터를 보니 따르고 싶지 않다.
- 광주말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재밌게 느껴진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 화제가 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광주말 포스터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간간히 사용하는 것이 표준어 포스터와 비교되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광주말 포스터를 선호하는 사람은 주로 광주말 자체에 대한 친근감과 구수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역적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광주말의 익숙함과 정겨움을 가질 수 있는 지리적 범위는 광주·전라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 지역’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해준다는 점에서 광주말 포스터의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표준어 포스터를 선택한 사람들의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고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 같아 표준어 포스터를 골랐다.
- 광주말은 억양 때문에 더 공격적인 느낌이 더해진 것 같고, 표준어 포스터가 더 공익성이 강한 것 같다.
- 광주말 포스터는 장난스럽게 다가온다. 표준어 포스터는 경고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전달된다.
- ‘기언치’와 같은 표현은 어렵게 다가온다.
- 광주말 포스터를 보며, (타지역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이런 사투리를 평소에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싫을 것 같다.

표준말 포스터를 선호하는 사람은 광주말이 가지는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또는 말투의 무게감이 다소 가볍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억양이나 표현에서 경고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 공격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특히 논란 부분은 ‘광주 사람들이 이런 사투리를 평소에도 쓴다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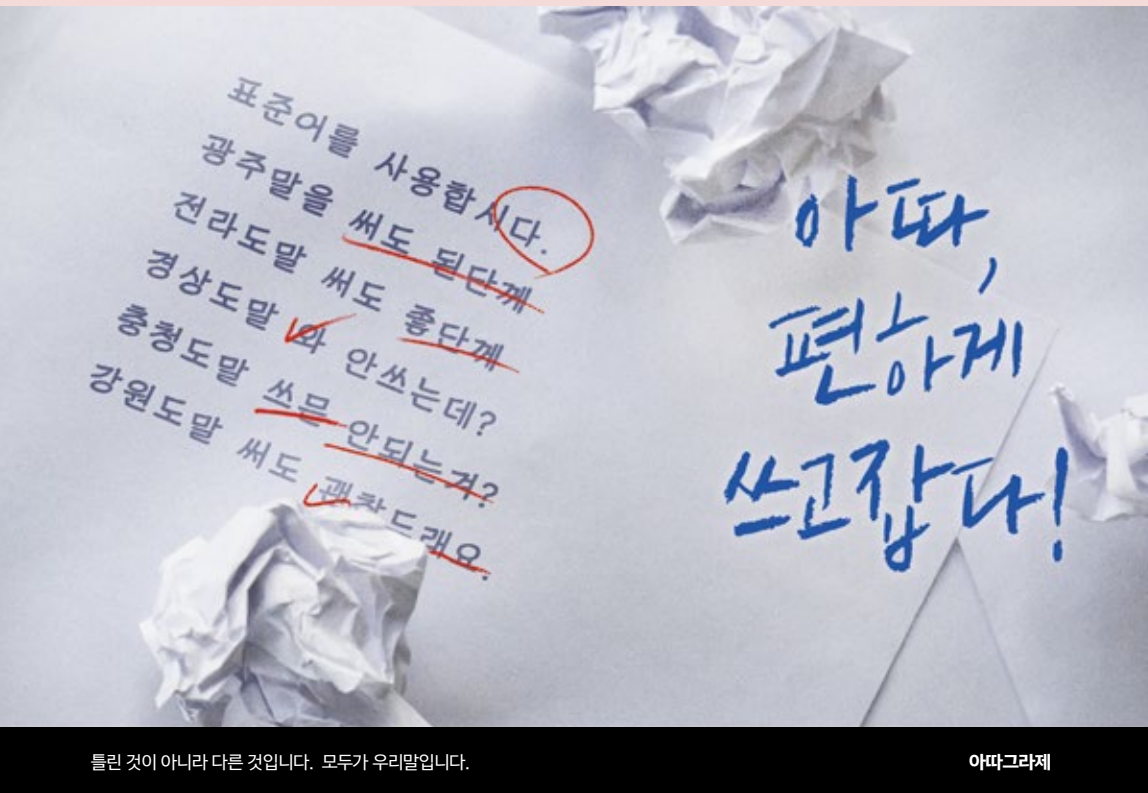
싫다.’는 광주말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캠페인 조사를 통해서 광주말 자체에 지닌 친근감, 구수함과 더불어 공공 마케팅으로 활용되면서 새롭게 얻은 ‘신선한’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 표준어 지향적인 현대 언어 생활 속에서 캠페인, 브랜딩, 광고와 같이 차별화를 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역말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공공의 언어로서 광주말이 활용된다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짙은 호소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는 공감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다.

모든 지역말이 그러하듯, 지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지속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아따그라제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가 지역말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이길 희망한다. 단순히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방언 등으로 불리는 지역말이기보다, ‘광주말’이라는 우리 지역 고유 말로서 자리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광주말이 이뻐고 귀있는 말로 광주 시민들에게 더욱 활용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말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긍정적 활용 방안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아따,
편하게 쓰고 잡다. ◇◇

지역에 대한 기록은 지역말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다. 우리 지역의 고유한 감정은 우리 지역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비로소 그 가치가 이어질 것이다. 지역색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광주의 색깔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광주말이 담긴 문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말입니다.

아따그라제

캠페인 포스터

광주말이 이쁘고 귀있는 말로
 광주 시민들에게 더욱 활용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말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긍정적 활용 방안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말이 담긴 문화 콘텐츠, 공공 콘텐츠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콘텐츠, 공공 콘텐츠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광주말이 번영하고,
 오래도록 지속해서 사용된다면, 곧 이것이 광주를 향한 애정, 광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광주에 살고 싶은 소속감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광주말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되길 바란다. 당신의 목줄기를 타고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억양과 단어와 표현과 말이 단순히 사투리로서 자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광주에 사니께 광주말을 쓰제.” “광주 사람이 광주말을
 알아먹어야제.”가 일상이 되고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지역말을
 확대한다면, 곧 지역민의 삶이 배제되거나 지역 학문이 책상머리
 학문으로 그칠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새로이
 시작되는 우리의 ‘광주학’이 ‘광주말’로 쓰이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아따그라제는 광주말을 포함한 지역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의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다.
 광주에서는 광주말이 소중하듯,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언어가
 소중하다. 광주말만이 유독 귀있고 이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말이
 소중하고, 예쁘고, 오래도록 간직되기를 원한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나는 광주말을 사용할 때마다 문서 프로그램
 안에서 몇 번이고 빨간 줄이 그어지며 단어 사용이 ‘틀렸다’고 교정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맞춤법 검사에서도, 문서 프로그램에서도 내가
 사용하는 광주말은 ‘틀린’ 것이 되어 있었다. 지역말은 틀린 것이 아닌데,
 왜 많은 사람은 여전히 틀린 말이라고 여길까. 지역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 오직 다를 뿐이다.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말인 것이다.
 광주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우리 ‘광주말’이 현대적 시각에 알맞게
 오래도록 활용되고, 새로이 적용되고, 미래 문화 자원의 맛있는
 반찬이길 바란다. 광주만의 고유한 광주말을, 우리는 편하게 쓰고 잡다.

4



문화인류고고학을 전공하는 유일한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다. 직접 도시 공간을 거닐며 국내외 다른 사례와의 비교·분석, 공간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남대 정문 일대를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그려 가야할지 섬세한 고민을 에세이 보고서로 담아냈다.

-

서희진 · 송호석 · 신유호 · 한희영 · 이지은 · 이현

야 있냐, 워커빌리티 아냐?

차선의 경계가 없는 골목,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알아듣지 못할 굉음을 내는 자동차들, 이는 근현대의 도시 설계 과정에 쏘내려진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만든 무대, 즉 도시 공간이다.

오늘날까지도 도시 공간은 편안함 보단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연환경을 희생시키며, 의미나 가치가 아닌 실용과 경제성에 주목했다. 이 공간 안에서의 ‘좋은 곳’은 단지 ‘비싸고 유명한 곳’이 되었으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양 여겨졌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인지 훼손하는 것인지 몰랐던 이 무대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문득 어떤 부모들이 했던 대화가 떠오른다. 당신들은 유년 시절 골목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추억과 경험을 쌓았지만, 지금 당신들의 자녀에겐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물려주게 되어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함. 이 미안함이 계속 대물림되는 것. 괜찮을까? 미안함을 멈출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더 나은 도시 공간을 만들어 누구든 누릴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저 길을 걸으며, 쏟아지는 매연을 마시며, 삭막해지는 골목을 보고, 하나둘 저물어가는 상권을 보며 던졌던 질문들은

자연스레 우리를 배움의 길로 인도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모두를 이롭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느 때와 같은 날. 그 날은 문득 찾아왔다. 공부를 하다가, 책을 읽다가, 생각을 나누다가, 잠시 적막이 흘렀고, 누군가 입을 뗐다.

“야 있냐, 너희 워커빌리티 아냐?”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다. 더 나은 도시 공간을 만들자더니 갑자기 일하는 능력을 묻겠다고? Walkability? 작업 능력?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농담반 진담반 건넌 말에 팀원 한 명이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걷기 가능한 능력. 워커빌리티(Walkability).”

걷기 가능한 능력. 불과 몇 달 전 급작스레 찾아온 이 낯선 단어는 이 날 이후,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다. 당시에만 해도 워커빌리티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왜 필요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워커빌리티와 떨어질 수 없는 러닝메이트가 되었다.

처음에는 무작정 모여 책을 읽었다. 이미 몇 년 전, 미국에서 효과적인 워커빌리티의 순기능에 대해 논한 도시 학자 제프 스펙의 『왜 워커빌리티인가』에서, 실질적인 도시 공간 운영과 문화에 사례가 담긴 후지요시 마사하루의 『이토록 멋진 마을』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헌을 참고해 알게 된 워커빌리티는 말 그대로 워커빌리티(Walkability). 즉, ‘보행 가능성’으로 직역되며, 걷고 싶은 거리나 걷기 좋은 거리로 상징되고 있었다. 워커빌리티가 조성된 도시는 도시 내에 많은 공공재가 들어서 있어 시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과 가까우며,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사업가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자동차의 대중화에 불을 지폈고, 오늘날의 도시들은 산업화로 거대한 변혁을 겪으며 차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커빌리티는 대중화된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항하여 대중교통이나 보행 인프라를 포함한 대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

거에 우리가 강행했던 도시 계획 분야에 대한 반성으로 새롭게 등장한 도시 설계 접근이다.

워커빌리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보행 친화성이 있다. 보행 친화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행자가 길 위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안전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가로 환경과 친숙하면서도 특색 있는 흥미로운 건물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워커빌리티는 보행 친화성을 위한 유용성, 안전성, 편안, 흥미로움의 단어들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

지금껏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많은 도시들은 보행자를 무시해왔다. 넓은 차도와 좁은 인도, 사라진 가로수, 드라이브 상점, 거대한 주차장은 우리가 아닌 자동차가 중심인 거리 풍경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도시 풍경은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안정적, 혹은 안전한 거리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걷기 좋은 거리는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즐기는 과정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워커빌리티가 필요하며, 워커빌리티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워커빌리티는 오늘날의 어떤 세대와 호응도가 가장 좋을까? 워커빌리티는 거리가 활기차고 활발할 때 그 의미가 돋보인다. 활기와 활력. 오늘날을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들 중 이 두 키워드로 대표되는 세대가 있다. 바로 밀레니얼 세대(이하 밀레니얼)이다. 밀레니얼은 가치를 소비하는 세대로 자기 표현과 소비에 적극적인 세대, 소셜 네트워크에 민감한 세대,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을 세대로 설명된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지갑을 여는 이들 밀레니얼은 거리의 분위기를 소비하고, 퍼뜨리며, 빠르게 바꾸어나간다. 특히 밀레니얼이 전세대들과는 달리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삶을 선호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즐기는 이들의 문화는 워커빌리티와 만났을 때 더욱 폭발적인 확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워커빌리티와 밀레니얼은 공

생한다.

밀레니얼의 흥미와 워커빌리티를 효과적으로 연결한다면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친숙하면서도 특색 있는 건물들로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우리가 속한 이 세대가,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이 시대에, 삶에 엄청난 윤택을 가져오진 않더라도 하루하루에 의미를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모였다.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의 평범한 하루가 내일도 기억나는 하루가 되고,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놓쳤을 소중한 모든 것들이 워커빌리티로 하여금 재발굴될 수 있길. 이 값진 상상들은 곧, 누구에게나 걷기 좋고, 의미 있는 거리 문화를 조성할 계획을 그려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질문은 ‘워커빌리티를 어디에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일 것이다. 간단하지만 복잡하고, 단순하지만 어려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장장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전대 정문: 걷기 위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워커빌리티와 광주. 광주에서도 어디가 '걷기 좋은 길'을 마련하기에 적합할까? 어떤 곳이 '거리 문화 만들기'에 적합할까? 광주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값진 의미가 드러나지 못한 장소. 즉, 숨겨져 있는 소중한 원석을 발굴해내겠다는 엄청난 포부는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광주역 일대와 푸른길공원을 거쳐 광주와 화순의 사이의 소태에 이르기까지 광주 전역을 살펴보면 고민의 행군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소는 운명적이게도 가장 친숙하면서 애정이 있는 곳, '전남대학교 정문(이하 전대 정문)'이었다.

사실 전대 정문으로의 관심은 보행 인구가 많은 광주 내 핫 플레이스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특히 전남대학교 후문(이하 전대 후문) 변화가를 검토했던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하루 온종일 전대 후문을 돌아다니며 보행 환경을 분석하고, 주 거리 문화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 살핀 뒤 돌아가는 길에, 정문에 위치한 ☆☆☆짬뽕에서 식사를 하지며 전대 정문으로 향한 것이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방금까지 잔뜩 열의를 올리며 전대 후문을 분석해서일까, 아니면 그냥

그 날은 모두가 회의주의자가 되기로 했던 걸까. 도착한 전대 정문의 모습은 전대 후문과 사뭇 대조적이었다. 네온사인이 일렁이고, 젊은 인구의 활력과 온기가 잔뜩인 데다가 차 없는 거리를 통한 왕성한 걸음들이 매력적이었던 번듯한 전대 후문과 달리 지금의 전대 정문은 비교적 정리가 되지 못한 거리 풍경과, 안전하지 않은 인도, 적은 보행 인구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리하여 전대 정문은 대학가 특수를 통해 주 유동인구로 작용해야 할 밀레니얼들의 유입이 줄어드는 문제로, 더 나아가 이들에게 방문할 일종의 메리트가 없다는 인식의 문제까지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사실 전대 정문의 가치는 무한하다. 이곳 전대 정문은 5·18민중항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가치 있는 역사가 잠들어있는 광주 정체성의 요충지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과거의 상징성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거리 자체도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전대 정문의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다양한 광주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오늘날의 세대들이 공감하고, 바라고 있을 무언가 통해 점진적으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아이디어를 구상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구상에 앞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소리 높여 이야기한 것



↑ 전남대학교 후문 거리



↑ 전남대학교 정문 거리

이 하나 있었다.

“우리, 전대 후문은 따라 하지 말자.”

전대 정문이 전대 후문처럼 오락이나 유흥을 위한 곳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고, 지금의 잔잔함을 유지한 채 나뭇대로의 새로운 색채를 가질 수 있기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소망했다. 전대 정문이 비록 전대 후문과 달리 조금은 낙후되고, 북적이지 않고, 볼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포함한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며, 애정이 가득 서려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대 정문은 당장은 워커빌리티, 그러니까 걷기 좋은 거리로서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가치 있는 건물들과 지울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있다. 있는 것을 없애거나,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있는 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었다. 오늘날 상업성의 여부로 판단되는 그런 의미의 가치가 아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그런 곳. 누구에게나 작지만 소중한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곳.

특히 전대 정문이 이미 많은 대학생, 즉 밀레니얼 세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창조적인 거리 문화를 형성해보자. 전남대학교 재학생 다음에는 또 다른 창의적인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자. 향후 수십 년 간 이곳으로의 인구 유입을 지속시킬 수 있을 그 무언가를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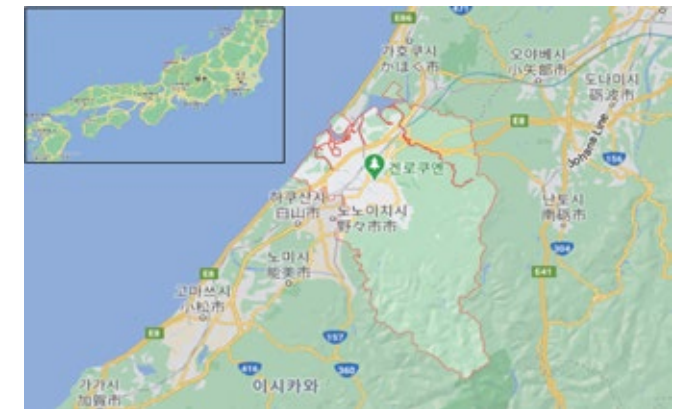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전대 정문과 지독하게 엮인 이 생각의 여정에 뛰어들기로 했다. 누군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혹은 별게 아닌 일이 될 거라고 장담할 고된 여정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상상을 안고 계획을 세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순간이었다.

3

해외 사례 연구: 광주와 닮았던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일본 가나자와의 사례

걷기 좋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완벽한 성공과 완전한 실패는 없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을 닮아있는 여러 사례를 찾아보는 것. 그것을 습학하는 것, 그리고 개작하는 것, 정문을 워커빌리티로 만드는 데 이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 일본 가나자와시의 상세 위치 출처_구글 지도

팀원 모두가 12개의 해외 사례를 발굴하여 광주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책을 읽고, 개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그 사례 속에서 꼬집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꼬집고 파헤쳤다. 두 부분씩 주제를 나눠 맡아 본 인이 그 사례 속 나라의 PR인이 되어 소개하고,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업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광주와의 연결 지점을 고찰하는 그런 학문적인 열의를 불태웠다.

여러 좋은 해외 사례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일본 가나자와시를 위커빌리티의 멘토로 삼기로 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도시라면, 가나자와시가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같은 별명을 지녔으나 한 곳은 멘토가 되고, 한 곳은 멘티가 된 것에는 이미 가나자와시에서 치룬 성공적인 역사적 공간 재생 사업이 있기 때문이었다.

가나자와시는 전쟁, 지진과 같은 잔병치레 없이 일본의 전통문화와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하야 역사·문화의 도시라는 것이다. 이곳은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 오랜 역사를 지닌 공간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이 장소로 불러 모은다.

사이가와와 아시노가와라는 두 개의 하천이 가나자와시를 관통하고 있고, 그 사이로 거미줄처럼 수없이 많은 물길이 나 있다. 그렇게 얹힌 수많은 물길의 흔적 안에는 역사적인 기억이 함께 녹아있고, 그 흔적들은 길



↑ 가나자와의 역사적 건축물
출처_가나자와 관광협회



↑ 가나자와 수변 공원
출처_callejeando por el mundo, "Japón, Kanazawa en un día"

→ 가나자와시 공예 장인

출처_Katy Wong,
"KANAZAWA-CRAFTSMAN
MAKING YAMANAKA-
SHIKKI LACQUERWARE"
cathaypacific-discovery,
2019.03.26

→ 가나자와시 전통 공예

히로 사가
출처_가나자와시 관광협회



을 걷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자와의 테이블프를 되감게 한다. 그 수변 공간이 바로 가나자와시의 도시 재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역사적 건축물들과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발전이 계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용수의 유지 및 관리, 수로 청소 등 자발적인 지역 주민단체의 협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나자와시가 있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나자와시가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이 곳만의 특별한 예술적 행보가 있다면 그것은 '전통 공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역사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전통 공예, 현존하는 가나자와시의 전통 공예는 스물두 가지에 달하며, 많은 예술인도 이곳에서 그 행보를 함께 했다.

이렇게 가나자와시가 전통 공예 도시라고도 불릴 수 있던 까닭은, 시에서 장인들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에 열정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런 갖춰진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쳤기에 얻을 수 있었던 명성이리라.

광주도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전남대학교가 광주를 대표하는 한 대학교로서, 광주의 청년예술인들과 전남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미래의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감수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전대 정문 거리를 걸으며 광주의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남대 정문에 펼쳐지기를, 진정한 문화·예술의 근거지로서 존재하는 광주

를 내심 기대해 보았다.

일본 가나자와시의 역사적 수변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첫째, 지역의 개성을 살리고, 쾌적하고 윤택함이 있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도시 경관을 형성했다는 것.

둘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원하고 창출하며, 시민 문화로서의 도시 경관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들에 '전대 정문'을 주어로 대입하여 다시 문장을 일구었더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였다. 우리 전대 정문 거리만의 개성, 쾌적하고 윤택함이 있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전대 정문 거리를 만드는 것.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원하고 창출하며 시민 문화로서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대 정문으로 탈바꿈하는 것. 5·18 역사문화 공간이라는 기억과 걷기 좋은 거리라는 매력을 지닌, 그렇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그로부터 비롯되는 활력이 넘치는, 전남대 학생들과 지역 청년 작가들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문화예술 도시다운 모습까지. 가슴 설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가하마의 사례

지역마다 그 개성과 특색이 뚜렷한 일본, 같은 나라에도 상이한 모습의 도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었다. 가나자와 이후 우리의 눈에 띈 것은 시가현에 위치한 나가하마.

나가하마는 쇠퇴해가는 도시를 '박물관 도시 구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도시 재생 사업을 운영한다. 그 과정 속 지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지금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여겨진다.

나가하마는 교토와 나고야와 가까워 과거 물산의 집성지로 활력 넘치던 중심 시가지였다. 마치 전남의 물산 집성지, 교통의 중심으로 통하는 광



↑ 일본 나가하마시의 상세 위치 출처_구글 지도

주처럼. 그러나 광역시로 승격되어 전남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광주와 달리 나가하마는 교외 지역의 발달로 '사람 네 명과 개 한 마리'만 지나다니는, 이전의 활력을 완전히 잃은 쇠퇴한 도시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 역시 속절없이 진행되었고, 그렇게 나가하마는 도시 번영의 영광을 과거의 뒤편길로 떠나보내게 되었다.

그런 나가하마에게도 영광을 되찾을 도화선이 있었으니. 나가하마의 상징적 건축물이던 구로카베 은행을 중심으로 뭉친 지역민들의 힘이었다. 도시의 쇠퇴로 구로카베 은행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민들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 상징적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 시민회를 조직하고,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그들의 랜드마크이면서 동시에 그들 공공의 정체성인 구로카베 은행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들의 노력은 사실상 도시의 경제력을 잃으면 우리가 아끼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진행 내내 시민들의 노력이 두드러진다. 기존의 건축물을 보존하여 나가하마의 전통적 모습을 유지, 그 안에 새로운 점포를 입점하여 나가하마의 경제적 성숙을 도모하게 된다. 구로카베 은행과 주변의 빈 점포나 창고 등을 활용해 나가하마의 독특한 마을 분위기를 살려 관광객을 유치한다.



↑ ↗ 구로카베 은행 전경

출처_Japan Monthly Web Magazine, "Kurokabe Glass Shop, made by reforming a bank built in 1900" 2015.12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었다. 나가하마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유리 공예'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시는 유리 공예 점포를 적극 입성시키며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대목이었다.

“유리 공예와 나가하마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꼼꼼히 찾아보았지만, 그 어떤 연결점도 찾기 어려웠다. 사실 나가하마와 유리 공예의 연관성은 그리 깊지 않다. 그들의 전통, 또 더 나아가 정체성과 큰 관련이 없지만 일본 내의 예술 재생 트렌드가 '장인 정신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을 위주로 선행되다 보니 나가하마 역시 흐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론을 할 수 있었다. 나가하마는 유리 공예라는 콘텐츠를 도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였다.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담은 내실이 다져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나가하마의 사례는 지역민들이 직접 참가하여 만든 '공공성'의 도시로 본받기에 손색이 없다. 하지만 도시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도시가 그 도시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더지고 나서도 지속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 안에 가나자와와 나가하마의 모습. 광주와 참 닮아있기도, 또 닮아있지 않기도 한 이 두 사례는 우리의 아이 디어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구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비교적 비슷한 문화권을 영위하고 있고, 문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목적이 유사한 두 도시.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다양한 생각의 폭과 넓이를 가져다주었다. 전대 정문 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찾았던 수많은 사례처럼, 언젠가 우리가 만든 전대 정문의 모습이 새롭게 조성될 공간들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단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겠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세계 여행을 하는 것만 같았던 해외 사례 발표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배움을 주었지만, 같은 문화 정체성, 혹은 도시 발달 과정을 겪은 국내의 다른 도시, 즉 국내 사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국가별로 상이한 도시 발달 과정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고, 행정 시스템과 도시 발전을 꿈꾸게 되는 원인 역시 달랐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던 가나자와와 나가하마를 통해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에 이를 중점으로 관련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달동네 빈곤을 재현한 청주의 수암골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공공성의 부재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을 살필 수 있는 적절한 사례였다.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글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강렬한 인상의 문장들을 접할 수 있었다.

‘수암골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으로서 기획자와 예술가는 ‘아름다운 달동네’라는 대표적인 재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문화예술 사업이 주민의 욕구를 다르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낭만과 현실 사이」 중 p.64)

‘마을 리더 집단은 수암골이라는 이름도 기획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후에야 주민이 알게 되었고, “노인 양반들이다 보니까 너무 몰라서” 청주시나 기획자의 의도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비판한다.’(「낭만과 현실 사이」 중 p.76)

수암골의 사업은 주민이나 마을 구성원이 아닌 관 주도로 이루어진 데다가 외지인들을 통한 기획으로 인해 사업 과정과 결과에 있어 아쉬움이 많이 묻어났다.

“주민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수암골의 경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우리가 워커빌리티에 매료되고, 전대 정문을 연구지로 설정하는 과정, 그리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소중한 주체. 간과한 커다란 사실.

전대 정문의 주민들이라 함은 실제로 전대 정문에 거주하는 우리의 이웃일 것이다. 전대 정문에 주거지를 둔 이웃이거나, 전대 정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여기에 전대 정문을 거닐고, 앞으로 전대 정문을 거닐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덧붙여 고려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내 이들과 ‘워커빌리티’, ‘거리 문화’, ‘광주의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엮어내는 방법을 찾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먼저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 키워드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도시에서 표방한 가치와 광주의 문화를 접목시키면서 전남대학교 학생들, 전대 정문 주민들, 소상공인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꿈꿔보기로 했다.

그렇게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 정신’과 ‘문화예술 중심 도시’가 주요 도시 키워드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중에서도 모두가 입을 모아 실생활에서 실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문화예술 중심 도시 광주’였다.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비엔날레가 성황리에 운영 및 개최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찾는 일이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도시가 꿈꾸는 가치와 시민 정체성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문화예술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던 중 우리는 광주의 예술인들, 그 중에서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생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들이 전남대학교 내외부 인근에 마땅한 전시 공간이 없어 야외 전시를 단기간 운영한다던가, 다른 구로 장소를 옮겨다니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전대 정문과 전남대학교, 문화예술 중심 도시, 거리 문화.

“야, 이거다.”

그 후 두 번째 단추는 잠그려 노력하지 않아도 술술 잠기는 기분이 들었다.

“전대 학생들 조선대학교랑 연합 전시한다던데”

“컨택하자. 물어보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광주에서의 위치가 무엇인지. 또 전대 정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듣고 나면 주민들이랑 연계할 방법도 떠오르지 않겠어?”

과정은 더디지 않았다. 지지부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것처럼 물 흐르듯 재빠르게 진행됐다.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흔쾌한 허락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예술팀의 참여 관찰을 진행하고 뒤이어 인터뷰를 해냈다. 전시 기획부터 운영과 철거를 목격하고, 그 과정에 함께 몰두했으며,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듣기론 학생분들 연합 전시라고 들어서, 비용을 자부담하시는 것인지...”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요. 회비가 있어서 전시할 때마다 회비를 쓰거든요.”

“전시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겪는 문제라고 해야 하나...”

“일단 제일 큰 게 전시 공간. 아무래도 돈이... 돈으로 다 가니까. 전시 신청해도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학생이라서.”

문제 사항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학생이라 할지라도 검

증된 이력이 있어야만 대관을 승인하거나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

“경력을 어디서 쌓아요. 쌓을 곳이 없어서 저희 자부담으로 전시를 열어요. 수익은 따로 없어요. 거의 적자...”

문화예술 중심 도시 광주. 아쉬운 민낯. 저도 모르게 나온 안타까운 표정에 한 분이 머뭇대다 툭하고 뱉었다.

“광주에서 아무리 잘나가도... 뭐 사람마다 다른데...; 광주에서만 해서 잘나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광주에서만 하는.”

예대 학생들이 광주에서 설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확인된 셈이었다. 그렇다면 예대 학생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공간과 주민들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특히 어느 도시에서건 점점 잊혀져 가는 노년층까지도 꾸준히 함께할 방법은 없을까?

전대 정문의 노년 인구와 문화예술 활동이라... 전대 정문을 거닐며 마음 뿌듯해 하실 그런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대 정문, 이 거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낌직한 그런 것이 필요했다. 처음 든 생각은 전대 정문 골목 골목의 길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스팔트 거리 위에 주민들이 지은 시를 그려 넣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걸어다니며 내 이웃이 쓴 시를 읽고 공감한다면, 또 내 지인이 쓴 시를 보기 위해 그 거리로 향한다면, 내가 쓴 시를 보여주기 위해 내 가족과 거리로 나온다면... 삭막한 회색빛 정문 일대에 아주 조금은 더 감성적이고 따뜻해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에서 시작된 ‘광주 구성원들의 이야기’라는 좋은 콘텐츠를 보다 확대하여 글로 다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광주의 특별한 글, 내가 걷는 이 거리에서 겪은 광주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이 한데 모인 그런 글. 광주인이 본 옛 광주 회고록, 전남대학교와 5·18이라는 역사가 얹힌 증언의 글. 소외된 우리네 소시민들의 애환 섞인 푸념의 글. 책으로 엮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가 될 것인데. 한마디로 ‘경험의 가치를 담아 내는 독립 서적’일 것인데.

전대 정문 일대의 노년 인구와 신진 작가를 꿈꾸는 대학 학생들을 연결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적절한 분들의 인생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듣고 글로 풀어 적는 과정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힘을, 누군가에게 꿈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제공할 것이다. 완성된 글을 엮어낼 책 표지는 예대 학생들의 작품을 이용하고, 이를 전대 정문에 위치하고 있는 인쇄소에 맡겨 독립적인 유통 구조를 만든다. 모두가 함께 만든 책.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어디에 놓아야 할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은 없을까?

그렇게 점차 서점형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구색을 갖춰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될 것이다. 전대 학생, 주민, 소상공인들, 더 나아가 광주 전역의 잠재 방문객들. 모두가 함께 만들고 가꿀 이상적인 공간, 그 어느 공간보다 공공성의 힘을 가진 공간이라 확신했다. 무엇보다도 단단한 그런 힘을 가진 공간일 수 있을 것이다.

5

초록 지붕집, 문화와 예술이 머무르는 곳

“어? 여기 어때?”

한 단독 주택이었다. 다른 가정집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보통의 주택이 있었다. 초록 지붕으로 덮여있는 아기자기한 이층집의 모습을 한 이 공간은 우리가 생각한 전대 정문의 고유한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삶 속에 소박히 자리한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공간을 ‘초록 지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초록 지붕의 발견은 나름대로의 쾌거였다. 전대 정문에도 서점형 공간으



↑ 전남대학교 정문 ‘초록 지붕’ 집 전경



↑ 전남대학교 정문 ‘초록 지붕’

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초록 지붕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꿈꾸는 공간의 모델로 잡고, 어떻게 하면 이 일대에 거리 문화를 퍼뜨릴 수 있을 것인지 머리를 맞댔다.

초록 지붕 방문과 거리 유동 인구의 증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서점형 공간을 필두로 걷기 문화가 탄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며칠 간 전대 정문 일대를 걷고, 또 고민했다. 이옥고 회의실에 모여 칠판에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다. 일종의 지도 그리기인 셈이었다.

“자, 이게 초록 지붕이야. 주변에 뭐가 있었더라?”

“주위에 카페나 펍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꽤 있었어.”

“그럼, 주위에 있는 가게들로 초록 지붕집을 감싸볼까?”

“좋네. 초록 지붕에서의 소비가 이 일대로 퍼지게. 그래서 인구 이동이 생기게.”

거리 연결시켜 보자. 초록 지붕에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해보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첫 번째로 나왔던 아이디어는 책과 함께 인근 카페에서 제공하는 찻떡궁합의 커피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책’, ‘오늘의 커피’.

예를 들어 70년대의 젊은 시절을 회상한 수필이 오늘의 책이라면, 인근 카페 판매하는 다방커피를 추천한다든지, 소싯적 어른들의 첫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소설이라면 100m 떨어진 개인 카페에서 여러 비법을 녹여 만든 달콤한 카라멜 마끼아또를 추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그 시절의 감성과 다방커피. 달콤한 카라멜과와 풋풋한 사랑 이야기. 온 감각을 통해 느끼는 광주의 글감. 광주와 향. 광주와 맛.

만약 이런 느낌을 또 느끼고 싶다면 다음번에 또 책을 읽고 추천을 받으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의 꼬리를 무는 인문학 서적에는 마음을 진정시킬 건너편 카페의 캐모마일을, 짜릿한 비판으로 점철된 사회과학서적에는 씩씩한 흑맥주를, 광주의 산 증인들의 시와 에세이집에는 무등산 브루어리의 맥주를. 그래, 책을 구매한 후 받은 티켓은 카페와 펍의 할인

권이 될 것이다. 책을 한 권 사고, 할인권이 생겼고, 관련 음료를 추천 받았고, 그 음료가 있는 가게로 향해보는 것.

이를 실시하여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 전대 정문의 상권은 고객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메뉴를 개발하거나 고유의 콘셉트에 투철해지지 않을까? 초록 지붕은 광주 문화를 중심으로 할 테니 종종 추천될 광주산 맥주, 막걸리, 광주에서 로스팅한 커피... 광주에 있는 ‘무등산 브루어리’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광주 내 지역명 이름을 달고 있으니 더 광주 내음이 나지 않을까? 광주 이야기를 읽으면서 광주 맥주를 마신다는 것. 우린 아마도 완벽하게 광주에 동화될 지 모른다. 전대 정문을 지나칠 모두에게 작은 추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전대 정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 소상공인에게도 약간의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책과 음료를 즐기러 나올 사람, 즐기 위해 걸을 사람. 경제적 순환과 걷기 문화의 순환.

추천 리스트 안에 있는 전대 정문의 카페 혹은 펍과 협의하여 예대 학생들의 작품을 한 칸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두는 것은 어떨까. 상점 안 테이블 바로 옆 작은 바구니 안에 잡지처럼 들어있다. 언제든지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읽을 수 있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마음에 든다면 초록 지붕으로 향하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작품은 내 것이 된다. 작품을 구매한 돈은 작품을 그린 학생에게 돌아가고 학생은 그 돈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소상공인과 예대 학생들을 잇는다.

작고 소박한 아이디어가 계속되면 분명 거리는 변화할 것이다. 문화를 즐기러 전대 정문에 간다. 거리에는 어른들이 쓴 정겹기도 하고 아릿하게 슬픈 시들이 삼삼오오 적혀 있다. 그 길을 걸으며 서점에 도착하고 원하는 책을 골라 카페로 간 다음 따사로운 자리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책을 읽는다. 얼마나 낭만적인가.

이런 공간이 전대 정문에 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문화와 예술이 머무르는 공간. 바로 그 ‘초록 지붕’이.

우여곡절 경주 답사: 우당탕탕 환상 부수기

황리단길의 아픔

초록 지붕의 지속력, 공공성의 힘과 더불어 거리 문화로 뻗어나가는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이번엔 직접 발로 뛰어보기로 했다. 국내 성공 사례 답사. 전국의 다양한 서점과 거리들 중,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소소밀밀’이었다.

소소밀밀은 첫째, 경주 거리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인 황리단길에 위치해 있다는 점, 둘째, 자체 제작한 그림을 전시하고 마찬가지로 직접 선택한 책들로 공간을 구성했다는 점, 셋째 초록 지붕처럼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가정집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점 등에 의해 우리의 목적지가 되었다. 특히 이미 거리 문화 조성에 성공한 황리단길까지 구석구석 둘러보고 올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가 큰 이점이었다. 분명 성공적이고 환상적인 답사가 되리라 예상했다. 물론, 황리단길 입성 후 이 환상은 와르르 무너지고야 말았지만.

사전 조사에서 황리단길은 경주 ‘황남동’과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합친 것으로 ‘황남동의 경리단길’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다. 이태원의 ‘경리단길’이 골목 문화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난 뒤, ~리단길이라는 명칭은 거



↑ 경주 황리단길 전경



↑ 경주 황리단 골목길

리 문화로 준비한 곳에 붙는 일종의 칭호로 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황리단길은 우리에게 골목길 문화, 전통 한옥 스타일의 카페, 식당, 사진관들이 젊은이들의 발길을 이끌고, 1960~70년대의 낡은 건물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경주의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경주 워커빌리티의 집성체였다. 경주의 정체성? 워커빌리티? 걷기 좋은 거리? 초록 지붕을 거점으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전대 정문 거리 문화를 구성하기 위한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일제히 경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착한 첫날, 경주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신라’ 그 자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황남동 소상공인 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에서 경주시에서 황남동 시내를 고도를 제한한 한옥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여 책세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건물 지붕을 기와로 바꾸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있는 것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지자체와 시민들. 달콤한 이야기다.

하지만, 두 번째 날 점심부터 무언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첫 시작은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에서부터였다.

“기사님 황리단길 보니까 경주 왔구나 싶었어요. 경주는 어떻게 이 생각한 거래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저거. 서울서, 서울서 온 사람들이 한 거야”

“경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니지. 경주 아니고. 서울, 서울서 하던 거 경주 내려와서 했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터넷이다 뭐다 유명해져서 저렇게 됐지. 정작 경주 사람들은 다 나와 살아요.”

택시 기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5년 전까지만 해도 황리단길과 인근 황남시장은 쇠퇴 지역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황남시장 부근은 무속인, 빈곤층, 불법 노점상 등이 횡행해 경주 시민들도 다가가기 꺼리는 슬럼화 구역이었다. -기사님은 을씨년스러운 거리라고 표현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서울에서 일하며 접한 플레이팅 등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황남시장과 최대한 멀찍이 떨어진 오늘날 황리단길 초입에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호기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고, 젊은이들의 방문이 늘자 각종 상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더라.

황리단길의 시작과 유지에 늘 경주가 있었으리란 짐작은 보기 좋게 빛나갔다. 서울 사람이 가져온, 서울에서 성공한 아이디어를 그저 경주에서 시작한 것뿐이었다. 경주시는 황리단길이 유명세를 타자 황급히 거리 정



↑ 차로 가득한 황리단길

비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하여 지금의 정돈된 미관을 가지게 되었다.

몰려드는 관광객과 시의 전폭적인 지원은 황리단길의 빠른 상업적 발전을 도모했지만 10배가 넘게 뛰어버린 땅값은 임대료 상승으로, 더 나아가 황리단길 전반의 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원주민들은 견뎌내지 못하고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 악명 높은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가지 못한 셈이다. 애초에 슬럼화되어 있었던 황남시장은 경주 고유의 것이지만, 조성 사업에서 제외되어 수리되다 만 건물들과 버려진 물건들이 즐비한 채 여전히 어둡고 퇴색되어 황리단길 한 켠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경주 답사 기간 내내 뵈었던 총 4분의 택시기사님 모두 황리단길로 향하는 것은 결국 외지 젊은이들뿐이라며 경주의 중장년층 혹은 토박이들은 변화하는 황리단길의 풍토를 따라가지 못해 발길을 돌렸다고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환상의 금은 조금씩 파편화되기 시작했다.

황리단길의 더 큰 문제점은 사실상 잘 정비해둔 길에 차들이 즐비하다는 문제점이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몰려드는 인파는 넘치다 못해 걷기 힘들 정도였고, 마찬가지로 차들도 지나치게 많았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점심, 저녁 시간대에는 별다른 교통 제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종종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어 혼란하고 혼잡한 분위기가



↑ 경주 황남시장 입구

↑ 경주 황남시장 내부

가시질 않았다. 인도와 차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모양새였다.

우리는 이 원인을 경주시의 무한한 주차장 증설에서 찾았다.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이 타고 올 차를 수용하기 위해 토지를 사고, 주차장으로 변모시킨다. 이 상황을 보고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지하철역에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늘고, 반대로 쓰레기통을 없애면 역사 안의 쓰레기 양 또한 현저히 감소한다는 이야기. 경주시의 무한한 주차장 증설은 지속적인 자동차의 유입을 가져올 것이다. 반대로 주차장 증설을 멈추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유동 인구가 가득찬 거리를 만들면 자동차의 유입 또한 줄고, 자차 여행객 대신 두박이 여행객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삼일 간 황리단길을 걸으며 찾을 수 있었던 경주의 정체성은 역사 도시를 연상시키기 위한 한옥 양식의 건축물과 이곳저곳 그려져 있는 벽화, 그리고 경주 황남빵 정도였다. 그마저도 종종 일본식 한옥과 정원을 선택하는 가게들이 있는가 하면, 경주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어린왕자 벽화 등이 그려져 있어 이것이 '경주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라고 부를 만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상업성과 대중성에서 경주를 대표하는 장소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반면에 오로지 경주라는 도시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거리만 놓고 보았을 때, 사실상 구한말의 정체성을 영위하는 전주한옥마을과 큰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관광객들이 입고 거니는 한복들마저 신라의 것이 아닌 조선 말, 근대 한복이 주를 이루었다. 전국 어디에서든 한옥이 있으면 뒤따르는 콘텐츠들이 준비했다.

경주가 담아내고자 하는 '신라'라는 역사 콘텐츠.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우리에게 익숙한 '웃는 기와'라던지... 특색을 살릴 만한 콘텐츠를 더욱 활용했다면...?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아. 소소밀밀이 있잖아.

도시 발전과 도시 정체성, 그리고 도시는 공존하며 나아갈 수 없는 것일까? 만일 초록 지붕을 조성해 인구가 유입된다면,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적 발전보다 단기 이익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리였다. 상업적 목적에 치중하거나 대세를 따르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들이 필요했다. 황리단길의 모습은 다소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했지만, '소소밀밀'을 방문하면 이 맛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좋은 기대를 품었다.

소소밀밀은 그림책 편집자인 아내, 그림작가인 남편이 운영하는, 가정 주택을 개조해 만든 작은 책방이다. '성긴 곳은 더욱 성기게, 뻣뻣한 곳은 더욱 뻣뻣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이다.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그림책, 한 장 한 장 경주의 풍경을 직접 그린 업서들에서는 이방인 부부의 인생, 경주의 정취가 오롯이 녹아있었다.

"우연하게 경주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겼고, 그러다가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기로에 있을 때 경주를 선택했어요. 이 건물은 저희가 오기 전부터 이미 서점이었던 공간이에요. 그냥 저희는 작업실처럼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림책 서점이라는 거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던 때여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황리단길의 상업적 공간들과 소소밀밀의 다른 지점은, 이미 전부터 존재하던 서점이라는 점. 그리고 외지인이 맡게 된 뒤로도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여타 기념품점처럼 개조하여 얻을 수 있는 큰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경주의 정취를 공간 곳곳에 담아내어 지역민들의 관심에 기반한 중장기적 수익을 선택한 점 등에 있다. 주인 부부의 손때가 묻은 소품들과 경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나는 스케치 노트, 엽서, 이를 그려내는 자그마한 작업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주 소소밀밀만의 것이었다.

"저희 원칙이 있는데, 책을 사입해요. 한번 구매한 책은 끝까지 저희



↗ 소소밀밀 외부 전경
→ 소소밀밀 내부 전경
출처_ [책방 주인의 추천]
소소밀밀 구서보 대표-『하
루거리』, <월간 채널에스>
2020년 5월호, 김윤주 글

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그냥 사입을 하는 편이에요. 환불 안 하고. …(중략)… 평소에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책들로 구성을 했구요. 근데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기가 관광지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왔는데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주자주 오세요. …(중략)… 경주 주민분들도 자주 들르시구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이것이었다. 소소밀밀만의 고유 감성, 그림책에서 묻어나오는 추억들. 주류를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 우리가 꿈꾸던 초록 지붕의 색채와 통한다. 전남대학교 학생들, 인근 주민들, 더 나아가 광주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공성의 힘을 가진 책방. 답사의 목적은 이거였다. 실제로 실현된 사례를 보고 성공 가능한 것인지를 점쳐 보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경주는 환상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답사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졌다. 엄청난 기대를 안고 도착한 황리단길은 우리의 환상을 부수고야 말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 이후 만난 소소밀밀은 또 한 번의 가능성을,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광주의 것으로 채운, 전대 정문 일대의 주민과 전남대학교 학생, 그리고 외부인들이 융합될 수 있는, 그리하여 뻗어나가는 거리 문화, 주민 참여와 워커빌리티의 공존. 다수의 이상은 각각의 경험과 문화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현실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

라떼는 말이야... 백투더퓨처 80s :

문충선 대표님 인터뷰

소소밀밀 방문 이후,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어? 80년대에 정문에 청년글방이라고 지금은 사라졌을 거예요. 거기서 알바를 한 경험이 있어요. 주민들이랑 학생들 모여서 책도 읽고 모임도 하고 공연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없어요...?”

우리가 구상한 공간이 이미 실제로 있었다고...? 그런데, 없어졌다고...? 전대 정문의 소통의 장으로 불렸다는 청년글방은 이미 초록 지붕의 선례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뒷목이 서늘해졌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만 했다. 찾아보니 알게 된 것은 청년글방을 창립하셨던 분이 ‘문충선’이라는 성함을 쓰신다는 것과 현재에는 장흥에서 문화 공간과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에 몸을 담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락이 닿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떡하지? 진퇴양난이었다. 그러다 장흥의 문화 공간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발견했다. 그래도 장흥은 광주에 비하면 소도시니까 여쭙면 물어 물어 알 수 있지 않을까? 장문의 메시지를 적어 남겼다. 우리의

신원부터 시작해서, 연락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말인데, 문충선 대표님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이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동시에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문충선 아, 제가 문충선입니다.

이로써 전대 정문 일대를 공유하는 과거의 ‘청년글방’과 미래의 ‘초록 지붕’은 현재에서 손을 맞잡았다.

직접 장흥으로 찾아뵈 문충선 대표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셨다. 운영하셨던 청년글방은 80년대 민주화와 학구열이 불타오르던 전대 정문 일대의 소중한 공간으로, 약 10년을 아우르는 세월을 버텼다.

문충선 “우리 80년대나 90년대까지는 각 과나 씨클들이 있어서, 공부하는 씨클들이 있어서, 책 구매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니까 그 교실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질문 “네. 그때 영업하셨을 때 정문 상권은 어땠어요? 지금은 상대나 후문에 비해서 정문 상권이 많이 안 좋아져서 학생들이 정문을 잘 안 가거든요.”

문충선 “정문은 전대라는 상징이 있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 또 바깥에 모임들이 있잖아요. 세미나 하고. 그러면 청년글방에 그런 책을 구하러 이쪽으로 오지. 오면은 우리도 여기서 여러 사람 만나면 술도 한 잔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으니까 거리 자체가 활발했지... 서점이, 지금 하고 이제 비교하긴 힘들지만은 그때 활발했지. 그렇게 바깥에서도 대학가에서 만나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 같긴 해.”

당시 전대 정문에는 청년글방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서점이 있었다. 인문 과학 전문 서점인 청년글방, 진달래서점, 그리고 제일 오래된 서점 하나 (이름은 알지 못함), 인문·사회과학 서적에 교재까지 취급하는 서점 등. 이렇게 활발했던 지식의 오아시스들은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

문충선 “청년글방은 1988년 정도에 거점으로 남아 있었어. 대학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어. 그걸 채우려고 여기저기서 청년글방에 방문한 거지.”

〈질문〉 “저희는 입학했을 때부터 서점이 아예 없는 상태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많았던 서점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뭘지 좀 생각해보신 게 있으시다면...”

문충선 “80년대 말 90년대까지 보면 그룹 간의 사상 투쟁이 있었다고. 서양식 사회주의나 중국식 사회주의에서 갈라지는 그룹들이 있어. 서로 사상 투쟁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해. 이 판에서 안 지려면. 그래서 이제 이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아주 한 10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도 하면서 왔는데 현실 사회가 몰락하고, 학교에 90년대 이후 문화도 변화하고, 그러면서 수요가 점점 소멸한 거지. 사회과학 서적 구매 수요가.”

과거 80년대 ~ 90년대 상황은 미·소 냉전 후반기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념 담론이 퍼져나가던 시기였다. 전남대학교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은 80년대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를 전대 정문에 형성했고, 이 공동성은 청년글방과 같은 서점들로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전대 정문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그것을 탐구하는 지식인들의 집성지로 한 세대를 품었지만,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또 한번의 군부 출신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주의계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90년대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노선에 몸을 담

거나 혹은 오갈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과학에 대한 열망과 흥미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쇠퇴하기 시작했다.

문충선 “그때는 볼온 도서라고 해가지고, 리스트가 있어요. 이 책은 판매 금지를 시킨다던지. 그런 책들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책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보내오면 숨겨놔다가 판매를 하지. 그리고 이제 한번씩 경찰서에서 나와. 그래 가지고 자기 리스트 받은 책을 수거해가고 가서 조사 쓰고. 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을까? 그때는 그 비공식적인 유통, 그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비공식적인 배움이 있었던 말이야. 그걸 보러 오는 학생들도 있었지.”

과거 전대 정문 일대의 서점들은 정치와 사상 갈등에 대한 물음을 독재 정권의 영향 밖에서 해결할 기회 창출의 공간이었다. 전남대의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립, 지지하는 사상에 따른 서점 분위기의 형성,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서점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청년글방 또한 작지만 거대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시대 흐름의 변화 물결에 휩쓸려 사라졌다. 물론 형성했던 인적 네트워크와 공간에 대한 애착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소중한 뜻을 모아 공간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시대는 그만큼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에 다시 의문을 던진다. 과거의 청년글방이 오늘날 자취를 감춘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본다. “라떼는 말이야....”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가 공감하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 ‘백투더퓨처’. 이렇게 우리는 결승선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문충선 “아쉬웠던 일... 뭐 일이라는 게 아쉬운 게 다 있긴 하죠. 근데 나는 그때 재밌어서 크게 아쉬운 점이 생각이 안 나네요.” - 문충선 대표님 인터뷰 중 -

청년글방이라는 선례는 우리에게 좋은 표지판이기도, 또 막막한 경고판이기도 했다. 초록 지붕을 어떻게 꾸려야겠다는 입체적인 그림이 눈에 아른거리다가도, 세월의 흐름과 변화로 인해 소멸된 것을 되살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물음에 잠겼다. 모두가 물밀 듯 밀려오는 생각을 당해내지 못하고 무력해졌다.

그러다 불현듯 누군가 “근데 청년글방, 30년 전 이야기 아니야?”라며 당연한 말에 커다란 의미를 실어 말했다. ‘그치, 30년 전이지.’

30년 전? 30년이라는 세월, 그 한 마디가 우리에게 큰 물결로 일렁였다. 청년글방이 있던 80년대와 2020년 현재의 시간 차이는 3년도 아니고 무려 30년이다. 30년 전의 광주와 지금의 광주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러니까 정확히, 30년 전의 세대들이 누렸던 문화와 지금의 세대들이 누리는 문화가 다르다. 가치와 사고가 다르다. 이 다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분명 있었다.

우리는 세월의 간극에 집중해 그 시절 청년글방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날 초록 지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간의 성격, 특징, 정체성은 어떻게 달라야 할지에 집중해보기로 했다.

먼저 청년글방은 1980년대, 그러니까 민주화의 열기가 광주를 휩쓸고 있던 시대에 혜성 같이 등장했다. 시대 상황과 80년 대학생들은 ‘더 나은 이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물었다. 전대 정문 일대의 서점들은 학문, 정치, 이념 갈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서적들로 하여금 이 물음에 답할 기회의 공간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서점이 동일한 서적들을 취급했던 것은 아니다.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 서점의 성격이 결정되었다. 각자의 분위기가 있었던 셈이다. 마찬가지로 독자층도 달라졌다. 이념의 옳고 그름을 토론하고 경쟁하기 위한 시대의 분위기가 꾸준한 독자들을 만들었고 서점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서점의 유지에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였다. 동일한 사상과 이념으로 똘똘 뭉친 서점과 독자의 하모니는 단합과 결속으로 이어져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단골들을 통해 알음알음 다음 학번에게, 또 다른 친구들에게로 이어져, 서점의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자 유지되지 못하고 돌연 사라지고야 말았다.

그렇다면 초록 지붕은 어떨까? 지금 우리에게겐 냉전 시대도 없고, 타도해야 할 독재 정권도 없다. 그렇다. 2020년이다. 처음 위커빌리티를 접했을 때,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경험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걷는 것의 가치, 걷기 좋은 거리, 걷을 만한 문화가 있는 장소에 대한 소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모아두고 싸매두는 것보다, 경험을 위해 풀어놓고, 소비하는 것의 미학을 깨닫는 시대가 왔다.

우리의 가족들, 동료들, 지인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시대의 부속품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고, 되어가려 한다. 역동하는 자신을 찾으려 한다. 다른 경험,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그 시대에만 할 수 있는 슬기롭고 독창적인 경험을 원한다.

그래서 생각했다. 초록 지붕은 그런 경험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독창적인 경험. 이미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고민에 고민을 거쳤던 ‘광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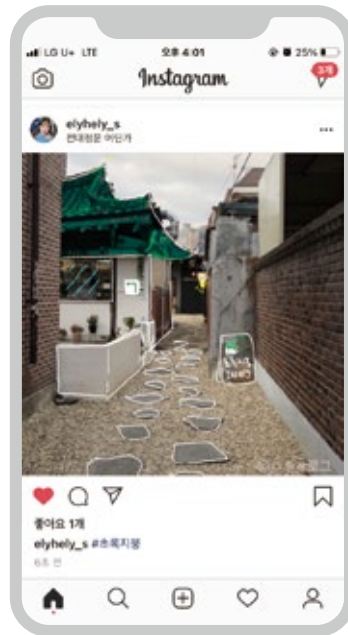
이야기가 담긴, 광주의 마음이 있는 콘텐츠. 광주의 구성원들이 경험한 가치와 생각의 장이 녹아 숨쉬는 그런 것'. 초록 지붕에서는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광주에서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가득일 것이다.

동시에 초록 지붕은 원래 그곳을 지키는 터줏대감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유지되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청년글방이 11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학술적 분위기에서 오는 경쟁'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초록 지붕은 그보다 더 원대한 지속력을 원한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원동력을 찾아야 할까?

끝없이 깊어가는 고민의 물결에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연구 계획서부터, 우리가 검토했던 논문들,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들, 그것들을 다시 되짚어보자. 되감겨보자. 그 끝에 해답이 있으리. 그러자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우리의 본질이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었다.

그래, 우리가 가졌던 그 인류학적 가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그 답이 있었다. 전대 정문 일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그 바램. 그러니까 공공성을 힘으로 달려보자는 것이었다. 초록 지붕의 원동력으로 공공성이 최고인 이유는, 공공성은 쓸수록 고갈되는 힘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고 강력해지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전대 정문 일대의 구성원들이 모여드는, 그리고 그들의 기여도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철학이 온전히 녹아 모두의 것이 되는 바로 그 공공성.

초록 지붕은 공공성의 힘을



양분으로 전대 정문에 뿌리내리게 되리라. 물론 뿌리를 내린 뒤에도 관심과 온기가 필요하다. 이 관심과 온기는 온라인 매체라는 훌륭한 동반자가 이어줄 것이다. 일종의 알음알음 네트워크를 가졌던 청년글방 식 연결망을 오늘날의 초록 지붕에 치환시키는 방법은 바로 광활한 '소셜 네트워크'일 테니까. 특정 소수의 지역민에게 알려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모두에게 알려지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다. 경주의 소소밀밀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그 주인이 서울에서 온 이방인 부부더라도, 그 부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의 훌륭한 협공 덕분이었다.

덧붙여 근래의 소셜 네트워크가 '감성 소비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참으로 좋은 지점이다. 인스타그램에 #감성을 검색하기만 해도 쏟아지는 게시물은 1,525만 개. 일부러 오타를 낸 #갠성만 해도 199만 개에 달한다. 그럼 책은? 독서는? #책 = 359만 개, #독서 = 274만 개. 초록 지붕이 이 해시태그들 어딘가에서 이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록 지붕의 반란을 여전히 믿기로 했다.

전대 정문에 워커빌리티.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11월이 되었다. 걷기 좋은 길. 그런 길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워커빌리티. 우리의 가장 친숙한 공간에 낯선 개념을 담아내려는 서투른 발걸음은 어느덧 결승선에 다다랐다. 이제야 아주 조금 워커빌리티가 무엇인지 감이 왔다고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더라.

광주가,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가, 이 고장이, 사람 냄새나는 공간으로, 또 의미가 있는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길 소망했고 그래서 접한 워커빌리티는 이제 나름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워커빌리티를 위해 싸맸던 머리와 채웠던 만보기의 숫자는 부족하고 아쉽기만 하다. 우리가 해낸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무엇일까? 이걸로도 괜찮을까?

먼저, ‘우리가 해낸 것은 무엇일까?’에 답해보자. 우리는 광주의 많은 것을 보았고, 따뜻한 유대를 느꼈다. 이 지난한 여정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 타지에 거주하는 팀원들에게 광주는 특별할 것 없는 도시이고, 어떤 목적에 의해 방문하게 되는 말 그대로의 ‘목적지’였다. 또 누군가에게는 무난한 하루를 보내는 ‘익숙한 일상지’에 불과했다. 다섯 달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광주는 워커빌리티의 희망과 잠재력의 도시다. 그 중에서도 전

대 정문 일대는 워커빌리티의 성장 가능성이 꿈틀대는 공간이다. ‘경험의 가치’를 중시하는 밀레니얼이 잔뜩 모인 대학과 닿아 있고, 오랜 세월 굳건히 자리를 지킨 소상공인들도 있으며, 터전을 잡고 사는 주민들도 있다. 약간의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이루고 싶은 마음만 모이면 금방 걷기 문화가 요동치는 장소로 탈바꿈할 공간이다.

혹자는 광주가 자동차 산업에 의해 발전하는 도시이므로 ‘걷기 문화’와 상극인 도시라고 말할 것이다. 광주 도심에 존재하는 수천 대, 수만 대의 자동차들은 여전히 우리의 양발이 땅을 박차고 나아갈 자유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만 같다. 그러나 많은 숫자의 자동차가 다닌다는 것은 또 줄일 수 있는 숫자의 자동차가 다닌다는 것이고, 걷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또 언젠가 걷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이 가능성에 사활을 걸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었던 아날로그적인 감성, 책. 광주의 이야기들이 숨쉬고, 광주 지식인들의 생각을 이따금 훑쳐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방문하기 위해 사람들이 밖으로, 또 거리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책을 사러 가는 길목의 보도블록과 벽돌마다 주민들이 써 내린 문학의 파편들이 적혀있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그 파편들을 모으고 모아 엮어낸 책의 표지가 전남대 학생들의 예술 등용문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그 책과 좋은 궁합으로 여겨지는 광주의 맥주를, 혹은 커피를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하여 상권의 숨통이 트이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어느 계절, 적당한 벤치에서 이 책과 커피를 읽고 마시며 길의 소담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흐름이 지속되어 거리에 보행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에 불편함을 느낀 차주들은 보행 인구가 많은 거리로의 진입을 꺼려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자동차가 적게 다니는 거리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에 점철되어 있는 결론이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를 몽상이 아닌 이상이며 실현 가능한 기분 좋은 상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광주와 전대 정문 일대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알고 있다. 이 상상을 현실에 담아내기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목격하고, 또 각종 토지대장과 부동산법, 시와 구의 뉴딜 정책에, 이미 비슷한 환경에 놓인 지역까지 들렀던 것은 때로는 ‘현실’의 문제가 해낼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하여 도출한 결론은 ‘해낼 수 있다’였다.

해의 사례와 타지역 답사는 우리가 광주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대 정문 일대가 도시화를 겪은 이후 그리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망친 그림에 멋진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수고는 필요치 않았다. 전대 정문 일대는 아직 그 무엇도 시도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쉬이 그려낼 수 있는 도화지에 가까웠다. 이 도화지에 거리 문화를 멋들여지게 그리려면 먼저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은 필기구와 책상, 그러니까 환경이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적어도 ‘걸을 때 바닥을 주시하며 걸어야 하는 정도’의 환경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였고, 둘러본 전대 정문 거리 일대에는 분명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는 뉴딜 사업이 진행되며 차근차근 보완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낙관적인 기대 속에서도 돌연 아쉬운 지점들이 떠오르는 것은 여정 내내 코로나라는 원치 않은 손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여전히 워커빌리티에 대한 배움이 모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연구 계획을 세울 때 금방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코로나의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연구 내내 거리에서 진행해야 하는 각종 보행 인구, 주민 인터뷰와 단체들의 참여 관찰 일정을 방해했다, 여정 도중 막힌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자문을 구한 교수님께서는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일종의 사망 선고를 내리시기도 했다. 눈물이 핑 도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가 있더라도 여전히 세계와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 공간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이라는 좋은 동반자의 존재는 이 상황을 타개할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악은

늘 더 나아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될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워커빌리티에 있어 부족한 지식의 깊이와 비좁은 시야는 간과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목소리를 귓가에 맴돌게 한다. 농친 무언가, 혹은 농친 줄도 모르는 무언가가 정말 ‘무엇’일까. 우리는 이를 알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려 한다. 이대로 만족할 줄 모르는 치기이기도, 또 성장하고 싶은 갈망이기도 하다. 멋모르는 대학생들의 이 미숙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한다.

“워커빌리티, 그게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2020 광주문화 백년대계

광주의 지문^{地文} 2

광주 문화자산 발굴 소모임 연구결과서

발 행 일 2020년 12월 22일

저 자 극장전 무등농악전승보존연구회 아따그라제 인류딜

발 행 처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발행부서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T. 062-670-7434

디 자 인 디자인창작소 사월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아이플렉스 501호
T. 062-383-6381

비매품

ISBN 978-89-963586-9-5

이 책의 조사·기획 및 연구는 광주문화재단 문화자산 발굴 지원 사업 ‘2020 광주문화 백년대계’ 추진 결과임
이 글의 저작권은 광주문화재단 및 필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사용과 배포를 금합니다.



간행물 등록번호 54-B553052-0039-1

2020 광주문화 백년대계

광주의 지문 地文 2

광주 문화자산 발굴 소모임
연구결과서

비매품

03060



9 788996 358695
ISBN 978-89-963586-9-5